

● 제4편

민속(民俗)

概 說

민속이란 일반민중의 생활습관을 말한다 민속은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특수한 의례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생활에는 의식주를 포함하여 많은 물질문화(物質文化)가 필요하고 이것들의 제작·사용·관리등 여러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따르는 도구들이 있어 우리의 주위를 보더라도 잡다한 물건이 많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 뿐만 아니라 예컨데 食事(食事)를 하나의 예로 들더라도 조리법(調理法)이 있고 식사법(食事法)이 있으며 식사후에 행하는 작업등 인간의 행위가 이에 따른다. 뿐만 아니라 계절(季節)에 따르는 음식(飲食)의 내용과 조리법(調理法)이 있고 명절(名節)에 따른 특수한 음식(飲食) 그리고 대사에 따르는 특이한 음식(飲食)이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민속이라 하였을 때 민속의 범위는 실로 방대(龐大)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속은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민속에서 취급하는 문화요소(文化要素)들은 민속에 의해서 관리되고 보전되는 것이기에 오랜 전통을 갖는 동시에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다는 시대성이 애매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예컨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솔이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왜 그러한 모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오래되었다는 것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자료·용도(形態·資料·用途)등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중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기(用器)가 무명의 공인(工人)에 의하여 제작되고, 제작될 수(數)가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공인(工人)이 제작하여야만 수요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민속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데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보면 집집마다 의례(儀禮)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가례(家家禮)라 한다 민속은 이와 같

이 실은 집집마다 갖는 생활양식(生活樣式) 내지 생활풍속(生活風俗)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논하기가 어렵지만, 한편 한 個人이나 한 가족은 고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나 타가(他家)의 것을 모방하게 된다. 따라서 민속은 고을마다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풍속이 집마다 또는 고을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민속문화(民俗文化)의 특색은 전파(傳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적인 특색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 예컨데 한복의 경우 지방에 따라 또는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그리고 남녀에 따라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한복으로서의 특색은 전국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이고 계층에 따라 다른 민속을 시흥군(始興郡)이라는 지역에 한하고 특히 전통사회(傳統社會)에서 일반민중이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이곳에 정리하려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속은 일상생활과 특수의례(特殊儀禮)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기에 이것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징을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보고, 다음에는 인간이 일생을 통하여 경과(經過)하는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보며, 다음은 1년을 주기(周期)로 하는 생활율동인 세시풍속(歲時 風俗)과 이에 따르는 오락을 보며, 그리고 끝으로 종교생활인 민간신앙(民間信仰)을 보기로 한다.

1. 衣食住生活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領域)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라도 이것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는 자연환경(自然環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 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自然環境)은 동식

물(動植物)과 지세(地勢)·지질(地質)은 고사하더라도, 기후가 온대(溫帶)의 특수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영하 10度를, 그리고 여름에는 영상 20度를 오르내리며 계절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막는 의복과 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의식주를 다시 나누어 항목(項目)에 따라 의식주를 보기로 한다.

1 - 1 衣生活

오늘날 우리가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농촌의 어디를 가더라도 남자는 양복, 여자는 양장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농촌에서는 일상시에 작업복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며 한복은 하나의 의례복(儀禮服)으로 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복이나 양장은 10년 내지 5년 또는 더 짧게 1년을 주기(周期)로 그 유행이 바뀌어 가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복과 양장은 일상생활에 많이 착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속조사(民俗調查)나 연구(研究)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양복과 양장이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자발적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직 유입된 역사가 짧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취급하려는 것은 한국인(韓國人)이 오랜동안 우리의 것으로 간직하여 왔고 한국인(韓國人)에게만 고유하게 애용되었으며 지금도 한국인(韓國人)의 마음에 우리 옷이라 여겨지는 한복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우리의 고유한 의복인 한복의 경우 경기도(京畿道) 보다 북부에 있는 평안북도(平安北道)나 함경북도(咸鏡北道)의 사람들이 입는 한복이 추위로 인하여 솜을 더 많이 두고 저고리의 길이가 길다든가 속 단속곳이 두텁다는 차이는 있겠으나, 시흥군(始興郡)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양식에 따르고 있다. 차이를 구태어 따진다면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특히 朝鮮王朝(조선왕조)의 관복(官服)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복(官服)은 관사(官史)의 제복(制服)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흔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평민복(平民服)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한복의 제작과정(製作過程)이나 관리·보관(管理·保管) 등은 약하고 형태와 부분 명칭만 보기로 한다.

女服(여복) : 한복은 크게 여복·남복(女服·男服) 그리고 아동복으로 대부분(大分)하여 볼 수 있다. 여복(女服)은 다시 저고리, 치마, 단속곳, 바지속곳, 벼선, 마고자, 두루마기로 나누어진다.

저고리는 의복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만들기가 몹시 까다로운 것이다. 남자의 저고리 보다 여자의 저고리는 의복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고리는 계절과 연령에 따라 특히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자료가 다르고 유행에 따라 길이, 깃, 배대기 등이 달라진다. 그러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저고리는 길, 진동, 소매, 셀깃, 동정, 수구, 도련, 배래기, 고대,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한복이 명절(名節)에 입는 예복화(禮服化)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져 가는 것이 삼화장 저고리이다.

삼화장 저고리란 소매끝인 수구에 다른 천을 달고 겉드랑이에 오는 부분에 다른 천으로 화장을 다는 것이다.

남자에 비하면 특히 부인들이 아직도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결혼(結婚)한 기혼여인(既婚女人)의 상징인양 한복은 부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여인의 계절감각(季節感覺)과 색채(色彩) 그리고 경제력(經濟力)에 따라 저고리의 자료가 다양하다. 춘추절(春秋節)에 많이 입는 옷감을 보면 숙고사, 숙사, 진주사, 호박사, 순인, 부사견, 관사, 삼팔, 명주, 춘추나이론, 옥양목, 뾰뿌링 그리고 춘추모직 등이 있다. 겨울에 많이 사용되는 옷감은 모본단, 양단, 고단, 신단, 공단, 예술단, 방초, 뉴우동, 명주, 나이론, 비로오드, 골덴, 벨벳, 옥양목, 뾰뿌링, 일반모직 등이 있

다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모시, 생모시, 배, 춘사, 항라, 고양사, 아사, 은조사, 생고사, 생삼필, 광생초, 나이론, 레에스 등이 있다

치마도 저고리와 같은 옷감으로 혹은 같은 것으로 입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 입는다. 치마는 주름과 단, 허리와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어깨거리를 달아입는다. 옛날에는 부인들이 열두 폭 치마를 입고 주름도 잔주름을 하여 입었으나 최근에는 여섯 폭 치마도 입고 주름도 굽게 잡아 입는다. 길이의 경우도 옛날에는 발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입었으나 최근에는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 치마의 길이가 약간 짧아졌으며, 또 옛날에는 처녀는 무릎까지만 덥는 짧은 치마를 입었으나 한복이 예복화(禮服化)함에 따라 처녀가 입는 짧은 치마가 볼 수 없게 되고 간혹 전도사가 입는 옷으로 되었다.

단속곳은 치마 밑에 입는 옷으로 두가랑이로 된 통 넓은 치마모양과 통치마 모양으로 된 두종류가 있다. 과거에는 단속곳만을 입었는데 최근에는 통치마식의 속치마가 많아져서 단속곳은 입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속곳은 겉에 입는 저고리나 치마와 달리 옷감이야 어찌하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한 색으로 입기도 한다. 단속곳의 옷감도 계절(季節)에 따라 다르니 춘추절(春秋節)에는 주로 숙고사, 순인, 진주사, 자미사, 향라, 관사, 명주, 삼팔, 인조견, 나이롱 등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자미자, 삼팔, 은반견, 명주, 인조견 등이 많고, 여름에는 모시, 왜사, 아사, 항라, 생삼팔, 생노방, 생고사, 인조견 등을 사용한다. 단속곳은 밑, 가래바대, 주름, 단, 옆트기, 허리 그리고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지는 과거 여자라면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사철을 통해 계절(季節)에 맞는 바지를 입었다. 그러나 근년(近年)에 이르러서는 연로(年老)한 할머니나 입고 짧은 사람들은 바지를 입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바지의 옷감은 대체로 단속곳과 같으며 모양도 단속곳과 같이 밑, 부리, 주름, 배

래기, 옆트기, 허리 그리고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별로 입지 않은 것으로 속곳이 있다 이것은 단속곳과 비슷한 모양을 하였으나 길이가 약간 짧고 밑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반드시 입었던 속곳은 우리 나라 온돌생활에 편리한 것이었다. 속곳은 밑, 밑바대, 가래바대, 단, 주름, 일트기, 허리 그리고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옷감은 계절(季節)에 따라 단속곳과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버선은 한복에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근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신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만들기가 어렵고 때가 잘 타며 빨아 말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버선을 신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이통 옷감으로 된 버선을 시장(市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신부(新婦)는 버선을 신고 또 버선을 시가(嬪家)의 어른들의 선물로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버선은 흰색으로 자료(資料)는 옥양목, 서양목, 광목, 무명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버선은 수녹, 뒤꿈치, 앞뿌리, 목 그리고 뒤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 것으로 약 60년전부터 입기 시작한 것이다. 마고자는 저고리에서 변화되어 생긴 것이다. 추위에 대비하여 입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 이른 봄, 늦은 가을 등에 주로 입는다. 마고자는 보온용(保温用)이라 하지만 사치로 입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일반(一般)보다는 부유(富裕)한 사람이 입는 옷이다. 마고자는 저고리에서 발전한 것이기에 저고리와 같은 모양을 하였으되 깃털이 없으며 부분명칭(部分名稱)은 길, 진동, 수구, 화장, 깃, 도련, 배래기 그리고 고대로 되어 있다. 마고자는 곁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색(色)이 많고 옷감은 계절(季節)에 따라 춘추절(春秋節)에 자미사, 방초, 속고사, 뼈뿌링, 그리고 동절(冬節)에 모본단, 양단, 신단, 공단, 예술단, 나이통 등을 사용한다.

두루마기는 겨울에 입는 옷으로 되어 있지만 여자가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80여년(餘年) 전(前)의 일이다. 두루마기도 입기 시작하자 마고자와 같이 늦은 가을 이른봄에도 입게 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나 대체로 경기도(京畿道) 이남(以南)에 분포되었고 외출복(外出服)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두루마기는 길, 진동, 수구, 화장, 무, 셀, 안섶, 깃, 동정, 고대, 도련, 옆트기, 그리고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옷감으로는 춘추(春秋)에 자미사, 국사, 모시, 옥양목, 뾰뿌링, 춘추모직 등이 있고 겨울용으로는 모본단, 양단, 공단, 예술단, 궁초, 방초, 호박단, 나이론, 일반모직 등을 옷감으로 한다.

이러한 한복 이외에 여자들이 겨울이면 조바위 남바위를 썼으나 근년(近年)에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근년(近年)에는 오히려 목도리를 두르는 경우가 많다. 근년(近年)에 특히 능촌에서 많이 눈에 띠는 것은 월남치마라 하여 통치마로 발까지 덮는 긴치마가 많고 이것은 특히 젊은 여자가 많이 입는다. 그리고 겨울이면 텔실로 짠 허리까지 덮는 텔샤츠를 많이 입고 이것은 노인들의 일상복내지 외출복이 되어 간다.

男子服：남자의 한복은 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남자의 저고리는 깃섶이 다소 넓었다 좁았다 하거나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하였지만 이것들은 극히 적은 부분적인 유행이었고 모양이 대체로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옛날에는 반가(班家)에서 비단옷으로 지어 입은데 대해 서민(庶民)들은 무명옷이었기 때문에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라 옷감과 색(色)이 달랐으나 근년(近年)에는 한복이 예복화(禮服化)하여 사회계층(社會階層)에 구별없이 다채로운 색과 여러가지 옷감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차이는 오히려 계절적(季節的)인 것이 되었다

남자의 저고리에 사용되는 옷감은 춘추절(春秋節)에 향라, 삼팔, 노방, 부사견, 옥양목, 뾰뿌링, 춘추모직 등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방초, 명주, 부사

견, 옥양목, 뾰뿌링, 일반모직을 그리고 여름에는 모시, 생모시, 항라, 생삼팔, 춘사, 안동포, 초포, 생노방 등을 사용한다. 남자의 저고리도 여자의 저고리와 같이 길, 진동, 수구, 화장, 결섶, 안섶, 깃, 동정, 고대, 도련, 그리고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바지는 저고리와 함께 짹을 이루는 것으로 바지에 사용되는 옷감은 대체로 저고리와 같다. 여자가 저고리와 치마를 조화하여 입듯이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를 조화시켜 입는다. 바지는 마루폭, 작은 살폭, 허리의 네부분으로 되어 있고 바지 하단은 대님을 매는 곳을 부리, 작은 살폭의 옆단은 배대기, 큰 살폭이 허리와 닿는 곳을 까마귀머리라 한다.

조끼는 남자들이 입는 한복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끼를 입기 시작한 것은 불과 70여년(餘年)에 불과(不過)하고 그 이전(以前)에는 배자를 입었으나 요즘은 배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조끼는 길, 진동, 깃, 고대, 주머니, 도련으로 이루어지고 주머니는 셋이 있으며 단추는 다섯이 있다. 조끼에는 대체로 고급 옷감을 사용하니 춘추(春秋)에는 숙고사, 자미사, 방초, 나단, 춘추모직을, 겨울에는 궁초, 양단, 고단, 모직을, 그리고 여름에는 관사, 생고사, 생삼팔, 생노방 등을 사용한다.

마고자는 약 100여년(餘年) 전(前)부터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저고리에서 발전한 것이다. 마고자는 길, 진동, 수구, 화장, 깃, 셋, 도련, 고대, 배대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마고자의 옷감은 대체로 저고리와 같다. 깃섶과 동정이 없는 것이 저고리와 다르며 단추를 두개 다는 것이 보통이다.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한 것은 고종(高宗) 갑신년(甲申年)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소매가 넓은 도포를 입었던 것이다. 도포에서 옆이 트이고 세자락으로 된 창옷으로 변하더니 창옷이 현재와 같은 두루마기로 변했다. 남자들의 두루마기도 여자의 두루마기와 같이 길, 진동, 수구, 화장, 무, 결섶, 안섶, 깃, 동정, 고대, 도련, 배래기, 옆트기, 고름으로 이루어 졌으나 옷

감은 무늬가 있거나 화려한 빛깔을 피하여 춘추(春秋)에는 명주, 항라, 모시, 옥양목, 뾰뿌링, 춘추모직 등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명주, 궁초, 방초, 부사견, 옥양목, 뾰뿌링, 무명, 모직 등을 사용한다.

남자들도 옛날에는 버선을 신었으나 근년(近年)에는 버선을 신지 않고 모두 양말을 신게 되었다. 그리고 외출시(外出時)는 갓을 썼으나, 오늘날은 거의 갓을 쓰고 외출하는 일이 없다.

아동복(兒童服) :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는 것은 근년(近年)에 이르러 어른보다 훨씬 적어졌다. 다만 돌때와 명절(名節)에 입는 예복(禮服)으로 화(化)했다. 이러한 때나마 남아 있는 어린이의 옷은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조끼, 타래버선, 전복, 복건 등이다.

색동저고리는 남녀(男女) 구별하지 않고 입히지만 돌에는 돌띠를 둘러 남녀(男女)를 구별하니 남자는 남색, 여자는 자주색 띠를 둘러준다. 색동저고리는 소매가 옥색, 노랑, 흰색, 남색 등의 색동으로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모두 성인복(成人服)과 같다.

풍차바지는 밑을 트고 뒤로 여미는 바지로 부분명칭(部分名稱)은 마루폭, 큰 살폭, 작은 살폭, 밑, 배래기, 부리, 주름, 허리, 어깨로 되어 있다. 타래버선이란 돌 전후(前後)의 어린이가 신는 것으로 잘게 누벼 수를 놓은 것이다.

전복이란 뒤와 옆을 튼 것으로 두루마기 겉에 입는 옷이다. 옛날에는 무관(武官)들이 입었던 것이지만 근년(近年)에는 어린이의 호사복으로 되었다. 복건도 옛날에는 총각이나 신랑(新郎) 등이 쓰던 것이 오늘에는 돌잡이 어린이의 것이 되었다.

예복(禮服) : 일상복 이외에 의례시(儀禮時)에 입는 의례복(儀禮服), 즉 예복(禮服)이 있다. 예복(禮服)이란 혼례복(婚禮服)과 상복(喪服)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혼례(婚禮)나 상례시(喪禮時)에 반드시 입던 것이었다. 그러

나 최근에 이르러 정부(政府)에서 권장하는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이 정해지고 혼상례(婚喪禮)의 절차와 과정을 간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혼례복(婚禮服)과 상복(喪服)까지 간단하게 하기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에는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예컨데 혼례식(婚禮式)에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예식장(禮式場)에서 결혼식(結婚式)을 올리고, 도시에서는 상례(喪禮)도 평복과 같은 양복을 착용하되 흑색 두리, 즉 수경(首經)을 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복(喪服)은 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게 되었고 도시에서는 여자가 흰옷을 입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혼례복(婚禮服)은 농촌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 되었다.

1 - 2 食 生 活

식생활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일일(一日) 삼식(三食)을 하여야 인체(人體)를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기에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식생활이라 하면 이곳에는 음식물(飲食物)의 종류(種類), 음식물(飲食物)의 조리법(調理法), 식기(食器), 조리용구(調理用具), 음식물(飲食物) 저장용구, 상(床) 차림, 식사법(食事法) 등 多樣(다양)한 것을 포함하여야 되겠으나, 이곳에서는 일상음식(日常飲食)으로서 상(床) 차림을 보고 미료류(味料類), 김치류, 등의 반찬류 그리고 절식(節食)을 보기로 한다.

밥상(床)을 반상(飯床)이라 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루 세끼 때마다 주식(主食)인 밥을 먹는 상(床)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밥상에 최소한으로 놓는 것이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간장, 고추장, 나물이다. 국은 계절에 따라 콩나물국, 배추국, 무국, 미역국, 시금치국, 감자국 등이 있다.

상(床)은 반찬의 가지 수에 따라 삼첩상(三棟床), 오첩상(五棟床), 칠첩상(七棟床), 구첩상(九棟床), 십이첩상(十二棟床) 등이 있다. 칠첩상(七棟床)

이상이 되면 앞서 본 것 이외에 장아치, 젓갈, 건포(乾脯), 구이, 찌개, 회(膾) 쌈 등이 놓인다. 특별한 경우에는 밥床 이외에 결상(床)이라 하여 반주(飯酒), 전골(煎骨), 과실(果實) 등을 놓는다.

국수를 주식(主食)으로 차린 상(床)은 국상(麵床)이라 한다. 이것은 원래 밥상(床)보다 간단하게 차리는 것으로 상(床)에는 국수 이외에 김치, 간장, 지짐, 과실(果實), 병(餅), 화채 등을 놓고 또 계절(季節)에 따라 몇 가지를 더 놓을 수 있다.

연회시(宴會時)에 차리는 상(床)을 교자상(轎子床)이라 한다. 교자상(轎子床)은 국수가 주식(主食)이 되지만 때로는 밥이 주식(主食)이 되기도 한다. 교자상(轎子床)은 가세형편(家勢形便)에 따라 차리는 음식(飲食)의 종류가 다를 것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음식(飲食)을 놓는 것이다. 즉 국수 이외에 만두(饅頭), 신선로(神仙爐), 떡, 김치, 회(膾), 편육(片肉), 약식(藥食), 약과(藥果), 유과(油果), 전과(煎果), 잡채(雜菜), 짬, 건포(乾脯), 화채(化菜), 다식(多食), 강정, 생과(生果), 건과(乾果) 등이 상에 놓인다. 위의 순서에서 떡 이하를 보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떡의 경우 白편, 색(色)편, 증(蒸)편, 송(松)편, 인절미, 개피떡, 경단, 꿀무떡, 시루떡 등이 있고 김치의 경우 속백이, 강김치, 동치미, 통김치, 깍두기, 물김치, 등이 있다. 회(膾)의 경우는 생선회(生鮮膾), 황육회(黃肉膾), 패류회(貝類膾), 간회(肝膾), 천엽회(千葉膾) 등이 있고 편육(片肉)의 경우 우육(牛肉), 우설(牛舌), 양지머리, 제육(豬肉) 등이 있다. 전과(煎果)의 경우 연근전과(蓮根煎果), 생강전과(生薑煎果), 굴전과(橘煎果), 산자전과(散子煎果) 등이 있고 짬의 경우 생선(生鮮)짬, 갈비짬, 영계(嬰鷄)짬 등이 있다. 건포(乾脯)에는 육포(肉脯), 어포(魚脯), 대구포(大口脯), 문어(脯)포, 젓복포(脯), 오징어포(脯), 등이 있다. 화채(化菜)에는 수전과(水煎果), 식혜 등이 있으며 다식(多食)에는 깨, 흑임자(黑荏子), 송화(松

花), 생강(生薑), 밤, 녹말, 찹쌀, 콩 등의 다식(多食)이 있다 강정에는 잣깨, 계피, 매화(梅花), 빈사과, 채소(菜蔬) 등이 있고 생과(生果)에는 배, 사과, 밤, 꿀 등이 있으며 건과(乾果)에는 밤, 대추, 건포(乾脯), 호도(胡桃), 실백자(實柏子) 등이 있다.

연회용(宴會用)으로도 특히 회갑(回甲)이나 혼인시(婚姻時)에 사용되는 교자상(轎子床)을 큰상(床)이라 한다. 큰상(床)에 오르는 음식물의 종류는 대체로 교자상(轎子床)과 같은 것이지만 특히 떡, 당류(糖類), 건과(乾果), 조과(造果), 생과(生果) 등을 높이 괴어 놓는 것이다 당류(糖類)란 원당(圓糖), 각당(角糖), 오화당(五化糖), 옥춘(玉春) 등을 말하고 조과(造果)란 유과(油菓), 전과(前菓), 강정 등을 말한다

회갑(回甲)과 같이 통과의례(通過儀禮)에 해당하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상(床)으로 차리는 것에 돌상(床)이 있다. 돌상(床)을 돌을 맞는 어린이에게 특별한 음식상을 차려 주고 돌잡이를 하는 것이다. 돌상에는 국수, 떡, 생과(生果), 조과(造果) 등을 놓는 외에 돌잡이 어린이가 남아(男兒)이면 冊, 붓, 활, 돈 등을 놓아 어린이가 무엇을 먼저 잡느냐를 보고 먼저 잡는 것이 책이면 學者가 되고, 활을 먼저 잡으면 武人(무인)이 되고, 돈을 먼저 잡으면 부자(富者)가 된다고 한다. 돌잡이가 여아(女兒)이면 활, 붓, 대신에 실을 놓아 바느질을 잘하는가를 본다.

특별한 상(床)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상(祭床)이다. 제상(祭床)도 가세(家勢)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상의 크기에 따라 삼탕, 오탕(三蕩, 五蕩) 등으로 부른다. 蕩은 魚蕩, 肉蕩, 鷄蕩을 말하니 이것을 삼탕(三蕩)이라 하고 최소의 수가 된다. 오탕(五蕩)은 삼탕(三蕩) 이외에 편탕, 수탕을 더한다. 제상(祭床)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수진설(祭羞陳設)이니 이곳에 홍동백서(紅東白西),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해(左脯右醢)라는 것 이 있다. 홍동백서(紅東白西)란 붉은 과물(果物)은 동편(東便)에 놓고, 흰과물은,

서편(西便)에 놓는다는 것이고 어동육서는 어물(魚物)은 동편(東便)에, 육촉(肉屬)은 서편(西便)에 놓는다는 것이니 신위(神位)의 좌편(左便)이 동(東)이고 우편(右便)이 서(西)가 된다. 좌포우해(左脯右醢)란 집사자의 좌편에 포(脯)를 놓고 우편에 식혜를 놓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음식(飲食)에 특색(特色)이 있다면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미료류(味料類)와 김치류이다. 장은 오늘날에도 가정(家庭)에서 담그는 것으로 되어있고 장담그는 날은 길일(吉日)을 택하여 담되 간조와 만조의 시를 알아보아 만조에서 물이 쏟기 시작할 때장을 담근다. 심한 가정에서는 장담그는 날 외인(外人)의 출입(出入)을 금(禁)하기도 한다. 한 가정의 장맛은 그 해의 기운(氣運)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라 하며 장맛은 그 집의 격도(格度)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여 주부(主婦)들은 정성껏장을 담근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이고 종류도 많다. 김치의 종류(種類)를 말하면 속박이, 통김치, 석박기, 비늘김치, 生김치, 장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신건지, 잔지, 깍두기, 오이지, 오이소박이, 가지김치, 뜯김치, 채김치, 엇저리, 굴깍두기, 오이깍두기, 멸치젓깍두기, 콘쟁이젓깍두기, 젖무, 무청깍두기, 소금깍두기 등이다.

시홍군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생활(食生活)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계절(季節)에 따르는 절식(節食)이 있다. 이것은 특히 세시풍속(歲時風俗)에 따른 특별한 음식(飲食)이니 세시(歲時)는 정월원일(正月元日), 입춘(立春), 상원(上元), 2월삭일(2月朔日), 3월3일, 한식(寒食), 4월8일, 5월단오(5月端午), 6월유두(流頭), 삼복(三伏), 7월7석(7月7夕) 8월추석(秋夕), 9월중구(9月重九), 10월오일(10月戊日), 11월동지(11月冬至), 12월臘享 등 평일과 다른 절일(節日)을 말한다

정월원일(正月元日), 즉 음력으로 1月1일날에는 조상(祖上)에 차례(茶禮)를 지내고 웨어른들에게 세배를 가면 음식을 대접받는다.례(茶禮)와 손님에게

주고 식구도 먹는 세찬(歲饌)에 떡국이 있다 떡국에 쓰이는 떡은 맵쌀가루를
쪄서 목세(木製)案板위에 놓고 자루달린 떡메로 쳐서 길게 만든 것이니 이것
을 흰떡이라 한다. 이것을 알팍하게 돈같이 썰어 장국에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어 끓인 다음 파와 고추가루를 쳐서 떡국을 만든다 설날이
면 누구나 떡국을 먹는 것이기에 속담(俗談)에 나이먹는 것을 『떡국
을 몇 그릇째 먹었느냐』고 한다.

정월(正月) 보름은 대보름이라 하여 뒤에 세시풍속(歲時風俗)에서 보듯이
여러 행사(行事)가 있지만 절식(節食)에도 특별한 것이 많다 우선 보름
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귀밝이술」이라 하여 청주(清酒)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먹는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보름깐다」 하여 날밤, 호두, 은행, 잣, 땅
콩 등 겹질이 있는 것을 깨뜨려 먹는데 이런 보름을 먹으면 일년 열
두달 무사내평(無事太平)하고 특히 종지나 부스름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원인 보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곡(五穀)밥이나 약반(藥飯)을 먹
는 것이다 오곡(五穀)밥은 맵쌀, 찹쌀, 팥, 콩, 수수, 조를 섞어지은 밥이
다 약식은 찹쌀, 대추, 밤, 기름, 꿀, 간장들을 섞어 찐고 그 위에 잣을 박
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름날에 특별한 반찬으로 외꼭지, 가지, 시래기,
호박, 버섯, 무 등을 말려 두었던 것을 나물로 무쳐 먹는다.

2月 朔日에 중화절식(中和節食)이라 하여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정월
보름날 세워두었던 화간(禾竿)에서 벼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드는 것
이니 떡가루를 빚어 손바닥만하게 또는 계란만하게 둥글넓적하게 만들고,
속에는 콩을 불려 소를 넣는다. 시루 안에 솔잎을 겹겹이 깔고 그 속
에 송편을 넣고 찐 다음 송편을 물로 닦고 참기름을 곁에 바른다. 이
것을 식구들이 먹는 것이지만 원래는 종들에게 나이 수대로 나누어 먹
이는 것이니 이날을 노비일(奴婢日)이라고도 한다. 농사(農事)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1년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노비에게 미리 떡을

먹이는 것이다. 원래 송편에는 콩을 넣지만 팥, 검정콩, 푸른 콩, 깨, 대추를 소로 넣기도 한다.

3月 3日의 절식(節食)에 화전(花煎)이 있다. 화전(花煎)이란 진달래 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등근떡을 만들고 이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 또는 꽃전이라 한다. 또 화면(花麵)이나 수면(水麵)을 먹기도 하는바 화면이란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국에 띄우고 다시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것이다. 수면(水麵)이란 녹두로 국수를 만들고 이것을 붉은 색으로 물들이고 꿀물에 띄운 것이다. 이것들은 절식(節食)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제사(祭祀)를 지내기도 한다

한식일(寒食日)에는 다례(茶禮)를 지내거나 성묘(省墓)를 하며 이때 밥을 하지 않고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으로 제례를 지낸다.

이 외에 봄에 먹는 춘절시식(春節時食)으로 몇가지가 있으니 우선 청포로 만든 묵이니 이것을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어 초장을 쳐서 먹는 것이다. 특히 봄날 저녁에 먹기 좋은 것이다

봄에 먹기 좋은 생선이 있으니, 밴댕이, 웅어, 복 등이다

봄에 먹는 떡으로 꽈장떡(饊餅)이 있다 이것은 맵쌀로 방울모양으로 떡을 만들되 그 속에 콩으로 소를 넣고 머리 쪽을 오무린 것으로 오색물감을 들여 다섯 개를 이어놓은 것을 말한다. 오색의 떡을 만들되 소나무 속 껌질과 제비쑥을 섞어 만들며 이것에서 크고 등근 떡을 마제떡(馬蹄餅)이라 한다. 또 찹쌀에 대추를 섞어 시루떡을 만든다 이들이 모두 봄철에 먹는 시절(時節)떡이다

4月 8日에 먹는 떡으로 석남(石南)떡, 느티떡, 미나리떡, 증편(蒸餅) 등이 있다. 석남떡은 석남잎을 넣고 만든 떡이고, 느티떡은 느티나무의 연한 순을 넣어 만든 떡이며, 미나리떡은 미나리를 넣고 만든 떡이다 증편은 찹

쌀가루를 반죽하되 술을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속에 삶을 콩을 넣고 위에 대추의 살을 빨라 찐 것이다.

4月에 먹기 좋은 것으로 장미화전(花煎), 어채(魚菜), 어만두(魚饅頭) 등이 있다 장미화전이란 노란 장미꽃을 따다 떡을 만들고 이것을 기름에 지져 먹는 것이다. 어채란 생선(生鮮)을 잘게 썰어 익힌 뒤 외나물 국화잎, 파싹, 석이(石耳)버섯, 익힌전복, 계란 등을 섞어 무친 것을 말한다 어만두(魚饅頭)란 생선을 넓게 잘라 조각을 만들고 이것으로 쇠고기를 쌈 서 만든 것이니 초장에 찍어 먹는다.

5月 단오(端午)에는 쑥떡과 수레떡을 먹는다. 쑥떡은 쑥잎을 짓이겨 맵쌀 가루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하여 만든 떡이다. 단오를「수릿날」이라고도 하므로 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드니 이것을 수레떡이라 한다.

6月 유두(流頭)는 15日로 「액막」이라 하여 술을 마시니 이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유두에는 유두연과 더불어 수전(水團), 연떡(連餅) 등을 만들어 먹는다. 수단이란 맵쌀 가루나 찹쌀가루를 짜서 떡을 만들고 이것을 구슬같이 잘게 썰어 이것을 꿀물에 넣고 어름에 채워 먹는 것이다. 수단(水團)을 물에 넣지 않은 것을 건단(乾團)이라 한다. 연떡이란 밀가루로 넙적하게 만든 것을 기름에 지지고 이것으로 나물을 싸거나 콩과 깨에 물을 섞은 소를 싸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무려 만든것을 말한다. 이것을 채롱에 짜서 초장에 찍어먹는 것이니 수단(水團), 연떡(連餅) 등은 유두(流頭)날에 먹는 시절음식(時節飲食)이고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삼복 더위에 먹는 삼복절식(三伏節食)이 있다 삼복하면 우선 꼽는 개국장이 있다 개고기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이 개장이다. 개국에는 고추가루를 맵게 타고 밥을 말아서 먹으면 개장국밥이 된다. 이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

개장국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육개장이나 삼계탕(蔴鷄湯)을 먹는다. 이런 절식(節食) 이외의 것으로 국수를 먹는다. 이곳에서 말하는 국수란 밀국수로 이 것을 청채(青菜)와 닭고기와 섞고 어저귀국(白麻子湯)에 말아 먹는 것이다. 또 국수와 미역, 닭고기를 섞고 물을 약간 쳐서 익혀먹기도 한다. 밀가루를 반죽하되 호박을 넣고 이것을 기름에 부쳐 먹는다. 또 호박과 돼지고기에 흰떡을 썰어 넣고 볶아 먹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더운 시절(時節)에 먹는 것이지만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참외와 수박이다.

8月추석(秋夕)에는 송편, 인절미, 울단자(栗團子) 등을 만들어 먹는다. 송편 이외에 시루떡도 만드니 무우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을 만든다. 인절미는 찹쌀가루를 쪘어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이것을 삶은 팥이나 콩가루 또는 깨로 겉을 바른 것이다. 울단자(栗團子)란 찹쌀가루를 쪊어서 계란같이 둥근떡을 만들고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붙인것을 말한다. 이러한 떡 이외에 특히 보름에 토란국을 먹는다.

9月 9日, 즉 중구(重九) 날에 먹는 음식(飲食)으로 국화전(菊花煎)과 화채(花菜)가 있다. 국화전이란 국화꽃을 찹쌀떡과 같이 섞어 만든 것이니 만드는 방법(方法)은 진달래떡을 만드는 것과 같다. 화채(花菜)란 배유자, 석류, 잣 등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것을 말한다.

10月 오일(午日)에는 팥을 넣고 시루떡을 만들어 이것을 외양간에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니 이것은 말의 건강을 비는 것이라 한다.

10月이면 농사(農事)도 끝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다. 옛 풍속(風俗)에 특히 서울에서는 난로회를 하여 먹었다. 난로회란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번철을 올려놓은 다음 쇠고기를 기름, 간장, 계란, 파, 마늘, 고추가루에 조리(調理)하여 구우면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먹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골이나 불고기를 말한다.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우, 외,

훈채, 계란을 섞어 장국을 만드니 이것을 열구자 신설로라 한다. 메밀가루로 만두를 만드는데 채소, 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로 소를 만들어 싸서 장국에 익혀 먹는다 이 메밀만두 외에 밀가루 만두인 변씨만두(卞氏饅頭)가 있다 또 맵쌀떡, 꿩고기, 김치, 만두가 시절음식(時節飲食)으로 있으나 김치가 가장 맛있을 때이다. 또 이즈음의 반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두부인데, 가늘게 잘라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부치다가 닭고기를 섞어 국을 끓인 것을 연포탕(軟泡湯)이라 한다 연한 쑥을 뜯어다가 쇠고기와 계란을 넣고 섞어 끓인 것을 애탕(艾湯)이라 한다. 또 쑥을 찹쌀가루에 섞어 떡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를 꿀에 섞어 바른 것을 애단자(艾團子)라고 한다. 또 찹쌀가루로 동그란 역을 만들어 삶은 콩을 꿀에 섞어 바르되, 붉은 빛이 나게 한 것을 밀단고(密團餚)라고한다 이것들이 모두 초겨울의 시절음식(時節飲食)이다. 찹쌀가루에 술을 쳐서 반죽하여 크고 작게 잘라 핫빛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기면 고치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속은 비어있다 그것에 흰깨, 검은깨, 흰콩가루, 파란 콩가루를 옆으로 붙인다. 이것을 강정(羨釘)이라 한다. 이것이 이달부터 시절(時節)음식이 되어 시장에서 많이 판다. 강정은 지금도 절식(節食)으로 흔히 볼 수 있다

11月 冬至날은 팔죽을 쑤는데 찹쌀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그 죽속에 넣어 새알심을 만들고, 꿀을 타서 시절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쓴다. 그리고 팔죽을 문짝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것을 쳐는다. 이 달은 청어(青魚)의 철로 종묘(宗廟)와 사당에 천신한다. 또 대구와 생복(生鰐)이 제철이기도 하다. 겨울철 시식(時食)에는 설농탕이 있다.

동지(冬至) 후 제1, 제3 미일(未日)을 랍일(臘日)이라 하는데 내의원(內醫院)에서 각종 환약(丸藥)을 만들어 랍약(臘藥)이라 하여 진상(進上)하고, 랍향(臘享)에 쓰는 고기로는 산돼지와 산토끼 고기를 사용했다. 또

참새를 잡아 어린이를 먹이며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이날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한다. 지금껏 이날은 개를 잡아 먹으면 좋다고 일러온다.

1 - 3 주 생 활 (住生活)

어떤 지역에 부착되어 있는 주민(住民)의 주거(住居)를 민가(民家)라고 한다면, 이는 인간거주(人間居住)의 최소 단위이고 물질문화(物質文化)의 기본속성(基本屬性) 중의 하나이다. 민가(民家)의 형태(形態), 구조(構造) 재료(材料) 등은 그 지역(地域)의 자연적(自然的) 환경과 문화적(文化的)인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속성(文化屬性)이며 문화지역(文化地域) 구분의 기본요소가 되므로 시흥군 지방의 민가(民家) 파악은 곧 시흥군 지방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 주는 것이된다. 그러나 민가형(民家型)의 분포가 행정단위인 시흥군과 반드시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유의하면 시흥군(始興郡) 지방의 가옥(家屋) 특색이 곧 중부지방(中部地方)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민가(民家)가 갖고 있는 부속시설(附屬施設)로는 장독대, 옥내(屋外) 변소, 축사(畜舍), 우물, 울타리 또는 담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이 장독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치(位置)는 반 이상이 가옥 후면(家屋後面)에 있고 앞면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 가량 되며 측면에 위치하는 집도 있다. 울타리는 집 전체를 둘러 싸고 있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건축재료(建築材料)는 목조(木造) 초가(草家) 집이 대표적이나 근래에 들어와 양와(洋瓦),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간다.

2. 관혼상제 (冠婚喪祭)

예로부터 우리 민족(民族)은 예(禮)를 숭상하여 왔다. 관혼상제(冠婚喪祭)란 우리 나라의 四禮를 말하는 것으로 관례(冠禮), 婚禮(혼례),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四禮)가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를 통해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계층(階層)의 사람에게 보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어 시흥군만의 특색(特色)을 찾기 어렵다. 억지로라도 특색을 말한다면 충청남도(忠淸南道), 전라남(全羅南)·북도(北道), 경상남(慶尙南) 북도(北道) 등에는 소론(少論), 노론(老論), 남인(南人), 서인(西人) 등에 따라 직할(直割)이 아니라 보다 좁은 범위에서 다른 가례(家禮)를 사용하나 시흥군은 두드러진 토착성씨(土着性氏)가 약하기에 주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사용하는 것이다.

2 - 1 관례(冠禮)

관례(冠禮)는 어린이에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갓(冠巾)을 씌우는 의식(儀式)이다. 이 때 갓이란 성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염는 모자를 의미한다. 관례(冠禮)를 치루기 전에는 어린이였으나 일단 관례를 치룬 후에는 사회(社會)의 일성원(一成員)으로서 성인사회(成人社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되는 것이다. 결혼(結婚)을 이 후에 하는 것은 물론이다.

관례(冠禮)는 중국(中國)의 것을 받아들여 고려(高麗) 광종(光宗) 16년(965)에 왕자(王子)에게 원복(元服)의례(禮)를 행한 이래 주로 상층계급(上層階級)에서 행해져 온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성년식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비슷한 고대(古代)의 행사로 신라(新羅)의 화랑제도(花郎制度)를 드는 학자도 있다.

이 관례(冠禮)는 보통 남자는 20세(歲), 여자는 15세(歲) 전후(前後)에 행해지는데 이 시기는 관례(冠禮)를 받은 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成熟)된 시기. 즉 사춘기(思春期)에 이르는 때로서 조선 후기(朝鮮後期)에는 10세 전후에 행해지는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이 관례(冠禮)는 주례자(主禮者)의 주관하에 거행되며 주요 의식(儀式)은 삼가례(三加禮)이다. 즉, 가관건(加冠巾), 재가모자(再加帽子), 삼가복두(三加幞頭)의 세 절차가 그것이다. 초가(初加)에서는 관례자(冠禮者)의 쌍상투를 합해서 쪽찌고 망건에 관을 씨우고 삼규삼(三絆杉)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힌다. 재가(再加)에서는 초가(初加)에서 쓴 관건(冠巾)을 벗기고 사모(紗帽)를 씨우고 심의(深衣) 대신 조삼(早衫)에 가죽띠를 매고 계해(繫鞋)를 신게 한다. 三加에서는 복두(幞頭)를 씨우고 편襟에 띠를 매고 신을 신진다. 이 세 가지 의식(儀式)은 일정한 격식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며 매번 주례자(主禮者)인 賚이 축사(祝辭)를 낭독한다.

여자의 경우는 계(笄)라 하여 어머니가 주관하며 쪽을 짓고 비녀를 꽂아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상과 같은 관례(冠禮)는 남자(男子)가 일단 성년식(成年式)에 달하면 상중(喪中) 기간을 피하여 가장(家長)을 비롯한 친척이 참석하여 장로(長老)의 인도로 가관착복(加冠着服)이 행해지는 의식(儀式)으로 예(禮)가 끝나면 자(字)가 수여되고 사당(祠堂)에告한뒤 참석자(參席者)들에게 절을 하는것이 보통으로 이후로는 성인(成人)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여자(女子)의 경우는 대개 혼사(婚事)를 앞두고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오늘날 이 관례(冠禮)는 민속(民俗)에서 사라져 버렸으나, 그 동기(動機)에 대해서는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 내려진 단발령(斷髮令)과 그 후 머리를 땋지 않고 상투를 떼어 버림으로서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관례는 어디까지나 일부 상류층(上流層)에서나 행해진 것이지 일반 서민(庶民)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례(婚禮)에 포함되어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이 관례(冠禮)만은 오늘날의 민속(民俗)도 과거 대중(大衆)의 민속(民俗)도 아님을 알 수 있다.

2 - 2. 혼례(婚禮)

사람은 누구나 대체적으로 일생에 한번씩은 결혼(結婚)을 하게 마련이다. 물론 승려(僧侶) 중 비구니나 신부(神父), 수녀(修女) 또는 독신주의자(獨身主義者)들은 여기서 제외되겠지만 대개 한번의 결혼(結婚)을 하여 가정(家庭)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결혼(結婚)의 의례(儀禮)인 혼례는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의례(儀禮)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혼인은 남녀의 결합(結合)을 사회적(社會的)으로 인정(認定) 받는 의식(儀式)으로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의혼(議婚),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가,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의혼(議婚), 納來(납래),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복잡한 의식순서(儀式順序)가 정해져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을 말한 것이지 꼭 그대로 지켜져 온 것은 아니며 형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1) 의혼(議婚)

혼인할 나이가 된 子女를 가진 집에서는 혼인문제(婚姻問題)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혼인은 일생의 대사이며 혼인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아가느냐를 좌우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고 가까운 친척(親戚) 또는 이웃에게 적당한 혼인률 부탁하는 일이 많다. 여기서 중매인(中媒人)의 역할이 시작된다.

구식혼인(舊式婚姻)에서 중매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예전에는 전문적(専門的)인 중매인도 있어 이를 「중매장이」, 「중매꾼」, 이라 하였으나, 흔히 어느 한 쪽의 친척(親戚)이 중매인이 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해서 중매가 들어오면 양가(兩家)에서는 서로 상대가(相對家)의 집안 사정에 대해 심문하기 시작하고 궁합(宮合)을 본다든지 당사자의 사람 됨됨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본다.

요즘은 당사자간에 맞선을 보기도 하고 양가 부모(兩家父母)가 먼저 만나기도 하나 예전에는 당사자의 부모끼리 중매인을 통해 일단 혼인시키기로 합의하여 정혼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사주와 정혼서를 보내는 것이상례이었다. 이를 납채(納采)라 한다 사주는 백지에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적고 이를 5간으로 접어 큰 봉투에 넣은 뒤 전면에 「사주」라 쓰고 이면(裏面)에는 「근봉」이라 써서 짜릿대에 끼우고 청홍실로 매어 사주보에 싸서 중매인이 신부 집에 전하는 것이다.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허혼서(許婚書)와 택일(擇日)을 보내는데 허혼서에도 일정한 양식(樣式)이 있다 택일은 연길(涓吉)이라고도 하며 전안(奠雁)년월일과 납폐시일(納幣時日)을 기입하되, 양가의 서신은 모두 주혼자인 부모의 명의로 한다.

납폐(納幣)는 함과 보내는 것인데 다른 지방에서는 약간 다른 면도 있으나 대체로 혼인 전날에 보내거나 당일 신랑과 같이 보낸다 함에 들어 있는 물건으로는 보통 신부치마 저고리감 두 벌 정도와 예장서(禮狀書)

라는 혼서지를 넣었다. 혼서지(婚書紙)는 일종의 혼인문서인 셈이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는 달리 근래에는 약혼식(約婚式)에서 예물이 교환되고 사주가 오가거나 또는 납폐만은 결혼 전일에 신랑의 친구들이 가져가거나 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혼례식(婚禮式)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것을 초행(初行)이라 한다. 신부집이 멀면 아침 일찌기 떠나야 하는데 이때 동행자로는 신랑집을 대표하여 신랑의 부친 또는 조부, 두 분 다 사망했으면 백부가 가는데 이를 「상객」이라 한다. 이외에 따르는 사람으로는 합과 관복, 또는 오리를 갖고 가는 「합진애비」와 「중방」이 있다. 또한 「후객」이라 하여 2~3명이 따르기도 한다.

신랑일행이 신부의 부락에 다다르면 신부 집에서 「대반」 또는 「인접」이라 부르는 안내원이 나와 이들을 「정방」으로 안내한다. 「정방」이란 신랑일행이 잠시 여장을 풀고 쉬는 곳으로 한집의 사랑채와 방 하나를 빌어 신랑이 올 방향에서 신부 집을 건너지 않은 곳으로 정한다. 신부 집에서는 이들에게 간단한 술상을 차려오고 요기가 끝나면 신랑은 집 안에서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입어 성장(盛裝)을 하고 합진애비는 납폐시에 맞추어 신부집에 들어간다.

신부 집에서는 납폐에 대한 준비로 따로 명석을 깔고 상을 놓고 병풍을 쳐 놓으면 합진애비는 함을 벗어 상위에 놓는다. 이 때 신부측에서는 다복(多福)한 여자가 이를 받아 안방으로 가져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왔네』하고 소리치면 신부 어머니는 함에 손을 넣어 처음 잡히는 옷감의 색이 무슨 색인가를 본다. 합진애비에게는 수고했다고 노자

(路資)를 주고 술을 대접한다.

납폐가 끝나고 나면 곧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신부집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휘장을 두르고 가운데에 대례상(大禮床)을 준비한다. 이 상은 「친영상」 또는 「교배상」이라고도 한다. 상 위에는 보통 촛대 둘, 송죽이나 사철나무를 꽂은 꽃병, 밤, 대추, 쌀, 보에 쌈 암탉과 수탉, 그리고 청홍 실과 쪽바가지 두 개를 놓는다.

신랑이 입장함으로써 혼례식(婚禮式)이 시작되는데 이때 식순을 알리기 위해 글 많이 배운 노인이 홀기를 부르는 일이 많다. 혼례식은 이 홀기(笏記)에 따라 진행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마(下馬) : 전에는 가마나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랬으나 요즘은 흉내만 내느라 문전의 쌀가마를 딛고 넘어선다. 이 부분은 생략되기도 한다.

贊者揖婿人 : 문에 들어선 신랑을 대반이 안내하여 들어온다.

奠雁廳 : 대반이 신랑을 전안청(奠雁廳)에 안내한다.

從者奉雁援之婿 : 목안을 들고 신랑 뒤를 따라온 사람이 신랑에게 목안(木雁)을 주면 신랑은 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 있다.

婿執雁北問詭 : 신랑이 목안을 들고 전안상(奠雁床) 앞에 무릎을 꿇고 앉 되 방향은 북향으로 한다.

置雁於地 奉雁置于卓上 : 신랑이 목안을 전안상 위에 놓는다.

俛伏興再拜 : 신랑이 잠시 허리를 구부렸다 일어서서 큰절 두 번을 한다. 이 때 신부 어머니는 목안을 싸서 빨리 신부가 있는 안방으로 던지는데, 이것이 바로 서면 첫아들, 누우면 딸을 각각 낳는다고 한다. 이것으로 소례인 전안례, 즉 부부의 맹서(盟誓)가 끝난다.

贊者引婿 : 대반이 신랑을 안내하여 자리를 옮긴다.

交拜席前：신랑이 안내를 받아 대례 올릴 교배상(交拜床) 앞에 온다. 이 때 신랑은 상 동쪽에 선다.

盥洗位南向立：손을 씻고 남향으로 선다는 것이다 대반(對盤)이 떠 온 물에 손을 씻는 척만 하고 수건으로 닦고 남향하여 선다.

婦引交拜席前：원삼(圓衫) 족두리에 곱게 단장한 신부가 양쪽에 인접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을 가린채 광복으로 깔아 놓은 위로 걸어 대례상 서쪽에 선다

盥洗位北向立：신부가 손을 씻고 북향하여 선다 그러나 옆에 있는 인접이 손만 적실 뿐이다.

婿揖婦就席：신랑이 먼저 대례상을 마주 보고 제자리에 서서 약간 고개를 숙여 (읍)(揖)을 하면 신부는 제자리에서 신랑을 마주보고 선다.

新婦再拜：신부가 신랑에게 큰 절을 두 번 한다.

婿答一拜：신랑이 신부에게 큰 절을 한 번 한다.

新婦又再拜：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新郎又答一拜：신랑이 답(答)으로 다시 한번 절한다. 이것으로 교례가 끝나고 다음은,

新郎新婦各詭：신랑 신부가 제자리에 앉는다.

卺拜禮再行如之！：합근례(合卺禮)를 행하라는 것이다 첫 잔과 둘째 잔은 각기 마시고 세째 잔을 교환하거나, 첫째 잔은 신부가, 둘째 잔은 신랑이 주고, 세째 잔을 교환하는 수도 있다.

대례필(大禮畢)：이것으로 혼례의 핵심인 소례·대례가 다 끝난다.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병풍을 쳐 놓은 안방에 먼저 들어가고, 신랑은 후에 들어가거나 다른방으로 가기도 한다. 이때 신랑은 「관대벗김」이라 하여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 집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 입는다.

이어 신랑은 간단한 요기상을 받고 이것을 물리고 난 뒤 상객과 함

께 별도의 큰상을 받는다. 여기 올린 갖가지 음식은 후에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상객은 사돈댁 어른과 인사를 나눈 뒤 보통 혼례일에 돌아간다.

신부가 혼례를 치룬 그날로 신랑과 함께 시가(姪家)로 가는 일도 있는데 이를 「당일우귀(當日于歸)」라 한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에 들면 「주안상」이라는 간단한 술상이 들어간다. 신랑 신부는 간단히 요기한 후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와 의복을 벗기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때 「신방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이 신방(新房)의 창문을 뚫어 구경한다.

이튿날 신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이나 떡국을 신랑에게 대접한다. 아침 식사 후 신랑은 신부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신부측 젊은이들이 「신랑다루기」 또는 「동상례」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폐단이 심해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수가 일반이었으나 근년에는 이런 풍속을 보기 힘들다. 3일째되는 날 신랑과 신부일행이 신랑집으로 떠나는데 이를 「신행」이라 한다. 예전에는 「해묵이」 또는 달묵이라 하여 해를 넘기고 달을 넘긴 후 신랑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

어쨌든 구식(舊式)의 혼례식은 이렇게 까다롭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오늘날에는 많이 간소화 되었다.

3) 新行(신행)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행 길에는 신부와 함께 많은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데 대체로 신부 집을 대표하는 상객(上客), 신부 수중을 드는 수보, 그리고 짐꾼이 따르고 신랑이 앞장을 선다. 이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탄다. 신부측 상객은 신

랑측 상객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나 조부가 되고 수모는 이모나 고모가 아니면, 친척 중 젊은 부인이 가거나 하님이 간다.

신부가 신랑의 마을에 이르면 신랑이 신부의 마을에 갔을 때와 같이 정방에 들어 쉬었다 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바로 신랑집에 들어간다. 이 때 집 앞에 짚불을 피워 이것을 뛰어 넘게 하거나 양쪽에 불을 피워 지나가게 하고 소금이나 팥 또는 목화씨 등을 뿌려 부정을 막는다.

신부의 가마가 마루 앞에까지 와서 내리면 신랑이 가마 문을 열어 주고 신부는 가마에서 나와 정한 방에 들어간다. 이 때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면 신부 가마에 깔았던 짚방석을 지붕 위에 던진다. 이것은 신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방에 들어간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간단한 요기상이 들어오고 조금 뒤에 신부와 상객은 신랑집에서 준비한 큰상을 받는다. 이 역시 별로 손대지 않고 물리면 상에 있는 음식을 빠짐없이 광주리에 담아 신부 집에 보낸다.

신부가 시가에 와서 드리는 인사가 곧 「폐백(幣帛)」으로 이를 「구고례(舅姑禮)」라고도 한다. 신부는 친정에서 준비해 온 대추, 밤, 술, 안주, 과일 등을 상 위에 놓고 시부모와 시가의 어른에게 근친의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제일 먼저 신부, 즉 머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치마에 대추를 던져주고 부귀다남(富貴多男) 하라고 당부한다. 이 때 신부는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에게 줄 옷이나 버선 등 선물을 내놓는다.

다음날 아침 신부는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에게 문안인사(問安人事)를 올린다. 이 문안인사는 시부모가 그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되지만 보통 3일 내에 그친다.

시집 온 지 3일간은 신부가 부엌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간에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신부를 식사에 초대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새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며 인사를 시키고 시가의 친족관계(親族關係)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알게 해 준다. 새며느리의 정상생활은 시집 온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부엌에 출입함으로써 시작된다.

예전에는 시집 와서 첫 농사를 다지고 수확한 곡식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친정에 나들이, 즉 「근친 觀親」을 갔으나 요즘은 신행한 지 1주일내에 신랑 신부가 같이 근친간다. 신랑이 초행 갔다 3일만에 신행이 있었으면 신랑에게는 재행이 되는 셈이다.

재행 갈 때에는 신부의 친족이 음식을 장만하여 신랑을 초대하여 이때는 부모가 안내를 맡아 신부의 친족들에게 인사를 시킨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신랑 신부가 본가에 돌아오면 신부에게는 한 집의 며느리로서 주부로서의 본격적인 살림이 시작된다.

오늘날 관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 행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 의례중에서는 특히 혼례가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례의 순서나 내용이 많이 약화되거나 생략되고 있다. 더우기 현대의 자유혼의 풍조는 이러한 의례적 관습의 변화를 촉진하는 한 가지 요인인 되고 있다.

지금까지 혼례를 의례, 혼례식, 신행으로 나누어 그 의례적인 측면을 보았다.

2 - 3. 상례(喪禮)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의례가 곧 상례이다. 상(喪)이란 원래 사망을 뜻하며 특히 자녀가 그의 부모의 사망을 말할 때 상이라 하며. 따라서 상은 애(哀)를 뜻하며 부모의 상을 친상, 친족 방친에의 상을 방친상이라고도 한다.

한편 상이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 (哀悼)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례는 조상숭배 (祖上崇拜)에 기인한례의 일종으로 제와 함께 선인에 대한 의례이니, 상례를 흉례, 제례를 길례라 한다. 이 중 상례는 유교적 (儒教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영역으로 그 절차와 형식은 오늘 날에도 변화가 심하지 않다.

여기서는 사람의 임종부터 (臨終) 검습 (斂襲) 출상 (出喪) 대소상 (大小祥) 그리고 제령 (除靈) 의예 (禮) 까지를 초종 (初終) 습검 (襲斂) 치장 (治葬), 그리고 흉제 (凶祭)로 나누어 본다

1) 초종 (初終)

부모의 병이 위독하여 운명할 기미가 보이면 병자 (病者)를 시체 (屍體) 모실 안방이나 대청으로 모시는데 남자는 정침 (正寢)에, 여자는 내침 (內寢)에 천치 (遷置) 한다 이를 천거정침 (遷居正寢)이라 하는데 즉 남자가 죽음에 임하여 정침에 천귀 (遷歸) 함으로써 남여의 별 (別)을 명백히 하고 죽음을 정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가 (班家)의 습속일 뿐 일반인은 보통 안방으로 모시는 것이 통례이다 자손 (子孫)들은 집 안팎을 조용하게 하고 개복 (改服)한 다음 부모의 손발을 잡고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는데 이를 임종 (臨終)이라 하고, 임종을 못 보는 것을 큰 불효로 여긴다

임종 할 방에 옮겨진 부모는 동쪽에 머리를 두개 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하고 바로 뉘어 놓는다. 혹 유언 (遺言)이 있으면 이를 머리맡에 앉아 받아 적는다.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예서 (禮書)」에는 임종시 남자는 남자의 손에, 여자는 여자의 손에서 숨을 거두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남녀의 내

외법의 일종으로 생각되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마지막 숨이 단절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솜을 입 위에 놓고 숨이 그치는 것을 지켜보니 이를 속광(屬纊)이라 한다.

이렇게 사망이 완전히 확인되면 모여있었던 자손들이 애곡벽용(哀哭撃踊) 하니, 즉 소리를 질러 비통하게 곡을 하고 가슴을 치며 발을 구른다는 뜻이다.

한편 밖에서는 영혼(靈魂)을 부르는 고복(阜復)을 한다. 「예서」에는 망인(亡人)의 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원손으로 옷깃을,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남자는 관직(官職) 명이나 자를, 여자는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고복(阜復)이 끝나면 지붕에서 내려와 고복을 한 옷을 시체(屍體)의 가슴 위에 얹는다. 고복하는 옷은 벼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복 또는 심의(深衣)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의나 도포(道袍), 여자는 저고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근래에 행해지는 고복은 마당에 서서 지붕을 보고 오른손으로 망인의 속적삼을 잡고 원편으로 흔들면서 망인의 주소, 성명을 말한 뒤「복, 복복」하거나 그냥 세 번「복」만 부르거나 또는 『돌아다 보고 옷이나 가져가시오』라고 외치기도 한다. 그리고 속적삼은 지붕 위에 던져 두었다가 후에 내려서 시체(屍體) 가슴위에 얹는다

고복은 떠나가는 영혼을 다시 불러 재생시키는 일종의 초혼의례(招魂儀禮)이며 흰 적삼을 지붕위에 얹는 것은 타인에게 상가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고복에 이어 사자상(使者床) 또는 사자밥을 차리는데 이것은 「예서」에는 없다고 하여 안하는 집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자상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사자상은 사자가 3명이라고 생각하여 밥 세그릇, 반찬, 돈, 짚신 세켤레 등을 명석이나 푼주 위에 올려 놓기도 하고 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니, 이 때 상주들은 재배 (再拜)하고 곡(哭)을 한다.

한편 방안에서는 망인을 지켜 보던 처자녀들이 머리를 풀어 피발 (被髮)하고 패물 등을 빼고 흰두루마기를 입되 부상이면 좌측 팔을, 모상이 이면 우측 팔을 끼지 않는 좌단우단(左袒右袒)의 격식을 갖추고 시체앞에 부복하여 근신(謹慎)하되 망인의 친자는 3일 불식하고 기공 이하의 근친은 멸식(減食)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복이 끝나면 시체가 굳기 전에 반듯이 놓고 간단하게 묶어 놓는데 이를 「수시」 또는 「소검」이라 한다. 「예서」에는 풀솜으로 입과 코를 막는 정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복잡하다. 우선 나무 세 토막 또는 짚 세 뭉치를 베개와 같이 만들어 웃목에 괴거나 또는 머리만 웃목으로 가게 하고 그 위에 칠성판 또는 시송판이라 하는 널판을 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되 손을 앞으로 모아 겹치게 한 다음 이를 허리까지 묶고, 다리를 고르게 하되 발바닥을 위로 치키고 염지 발가락을 끈으로 매고 시체의 몇곳을 묶은 뒤 홀이불을 덮어 놓고 앞에는 병풍을 쳐 놓는다.

병풍 앞에는 작은 상을 놓으니 이를 「시사전(始死奠)」이라 한다. 이 상에는 혼면(魂帛)을 만들어 놓고 생전음식보다 나은 포혜주과(脯醢酒果)를 놓는다. 「예서」에 의하면 혼백은 백읍(白緝)을 결하여 만든 것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종이를 접어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되게하고 오색실로 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적백 삼색실로 정자(井字)가 되게 만든 것으로 이 혼백은 작은 상자에 넣어 상위에 둔다.

상(喪)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므로 상사(喪事)를 여럿이 분담한다. 여기에는 상주·주부·호상·사빈·사서·사화·찬축(喪主, 主婦, 護喪, 司賓, 司書, 司貨, 賛祝) 이 있다. 상주는 주상자로 시체를 지키고 시사전(始死奠) 앞에서 봉사(奉祀)하는 사람이나 적장자(嫡長子)가 이에 해당된다. 만일 적장자가 없으면 승중장손(承重長孫), 차적지손(次嫡子孫), 접출자손(接出子孫), 순위로 정한다. 일단 상

주가 정해지면 형제들은 상주 유고시 동거친으로서 그를 대리하여 분향(焚香)할 수 있으되 여자는 상주(喪主)가 못된다.

주부란 자부들을 통솔하여 상사(喪事)를 치르는 여자로 망인의 처(妻)가 되는데 만일 妻가 없으면 상주의 妻가 된다. 호상(護喪)이란 상주를 도와 제반 상무를 집행 처리하는 사람으로 근친(近親) 중에 예에 밝은 사람이 맡는다 사빈(司賓)은 외청(外廳)에서 빈객(賓客)을 접대하는 사람으로 망인의 친구(親舊) 중액 서 뽑는다. 사서와 사화(司貨)는 상사 중 기록할 사항과 例貨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근친(近親)이나 친구(親舊) 중에서 택한다. 찬축(贊祝)은 원래 찬과 축을 말하는 것으로 찬은 찬명(贊鳴)이라고도 하는 의례 때 창(唱)하는 사람이고 축은 축문을 읽는 사람으로 친족이나 친구 중에서 택한다.

상보(喪報)를 알리는 것을 부고(訃告)라 하며 무엇보다 급한 상사이다. 근친에게는 직접 사람을 보내 알리나 원친(遠親)이나 친구(親舊)에게는 사서(司書)가 부고장을 통지하고 관에 계출한다. 부고는 원래 간단하게 「성명(상주명) 대인 모관공(某官公)」이라 하고 「이숙환금월모일별세전인부고」(以宿宿患今月某日別世專人訃告)라 하고 년월일과 호상 성명에 상이라고만 기입하던 것인데 요즘에는 흔히 신문지상(新聞紙上)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 되어 상주와 자손, 여서의 이름까지 적어 넣게 되었다.

2) 습검(襲斂)

다음 차례는 시체를 목욕시키고 묶어 관에 넣는 것으로 이에는 습과 소검, 대검이 있다 습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것이고 소검(小斂)은 시체를 묶는 것이고, 대검(大斂)은 시체를 단단히 묶고

입관(入棺)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운명한 당일에 습(襲)하고 다음날에 소검하고 3일째에 대검하였으나 요사이는 이를 한번에 하며 「습검한다」 또는 약하여 「검한다」라고 한다.

습할 사람은 습에 필요한 의상(衣裳)과 기구, 즉 습의, 솜없는 훌이불인 복금(復衾), 시체를 묶을 교포(絞布) 시체 놓을 칠성판, 반함(飯含)에 필요한 것을 갖고 시체실에 들어간다.

먼저 시체를 시상(屍床) 위에 놓은 채 수시(收屍)했던 끈을 풀고 옷을 벗긴후 미지근한 물에 향나무를 넣은 향수를 솜에다 찍어 시체를 씻긴다.

예전에는 전신을 씻겼으나 근래에는 얼굴, 손등, 발등에 몇 번 향물을 찍어 문지르는 정도이다

시체를 목욕시키고 머리를 빚기고 여상의 경우는 베드나무 비녀를 꽂는다. 이 때 손톱과 발톱을 깨끗이 깎고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 베로 만든 작은 주머니인 조발낭에 넣는다. 이것은 모두 4개로 관에 넣거나 습의 소매나 버선 등에 넣는다.

다음에는 수의(襚衣), 즉 습의를 입힌다. 옛날에는 소검에 입하는 검의와 수의가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검의가 없다. 수의로는 적삼, 고의, 도포, 두루마기를 입히고 버선을 신기고, 행전(行纏)과 대님을 치고 손에는 주머니 모양의 악수(幄手)를 끼고 얼굴에는 면건을 덮는다 옷을 입힐 때에는 이불을 덮고 훌이불의 네귀를 사방에 잡아 시신(屍身)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습이 끝나면 반함이라 하여 물에 불린 쌀을 베드나무 수저로 세 번 입에 떠 넣는다. 이것은 망인이 저승까지 가면서 먹는 식량이라 한다. 쌀을 넣을 때에는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가운데에 도합 세번을 넣되 첫 번 손가락을 넣으면서 「백석이요」 다음에는 「천석이요」, 「만석이요」라고 한다. 다음에는 동전(銅錢)을 넣는다.

반함(飯含)에 이어 교포(絞布)로 시체를 묶는 검을 한다. 교포는 세로를 묶은 뒤에 가로를 묶으면서 가로의 매수는 시체의 크기에 따라 5매듭 또는 7매듭으로 묶고 순서는 발끝에서 위로 3매듭 다음에 머리쪽으로부터 아래를 묶어 내려가 가운데 부분을 나중에 묶는다. 묶는 방법은 교포 한자락을 두 가닥으로 쪼개어 시체가 고루 싸이게 하고 오른쪽 교포가 밑으로 위로 왼쪽 교포가 가게 하고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서 끼운 후 남은 가닥은 다음 가닥 밑으로 끼운다 교포를 다매면 고깔이라 하여 창호지를 접은 것을 묶은 사이 사이에 끼워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집안 사람이나 친구들을 불러 만들어 꽂는 곳도 있다. 이것은 망인이 저승의 열두 대문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써워 주는 것이라 한다.

다음에는 시체를 입관하는 일로 바로 입관(入棺)하는 곳도 있고 칠성판(七星板)에 묶어 입관하는 곳도 있다. 칠성판이란 시체 크기만한 송판에 북두칠성을 그린 것으로 그 위에 시체를 놓고 칠성칠포(七星七布)라고 하는 일곱 자 일곱 치로 된 베로 감는다. 칠포를 감는 방법은 두 가닥으로 쪼개어 끝에 한 자 정도는 붙여 두고 발부터 쌈엔 후 어긋매껴서 싸 올라가고 포의 끝은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늘로 꿰맨다

입관은 지금(地衾)이라는 홀이불을 관위에 팽팽히 걸쳐 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은 후 차츰 홀이불을 늦추어 관바닥에 시체가 닿도록 한다. 어깨나 허리, 다리 등이 있는 빈 곳은 짚이나 종이 또는 현 옷으로 채우며 이를 「보공」이라 한다. 이렇게 시체가 흔들리지 않게 한 후 그위에 다른 홀이불인 천금을 덮고 관 뚜껑을 닫고 나무못을 친다 입관시는 망인을 마지막 보는 것이라 자녀들은 호곡벽용(號哭辟踊)한다.

입관이 끝나면 널 위에 남자는 「모관모공지구(某貫某公之柩)」라 쓰고 여자의 경우는 「모봉모씨지구(某封某氏之柩)」라 쓴다. 지방에 따라서는 상하만 기입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짚과 종이를 섞어 외로 꼬니 줄로 결관(結棺)

을 한다.

입관이 끝나면 혼백(魂帛)을 영좌(靈座)에 안치하고 영영(靈影)을 놓고 명정(銘旌)을 오른쪽에 걸쳐 놓는다. 이 때 상제(喪制)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통건과 소복(素服)을 벗고 복제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고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상복은 친소(親疎)에 따라 참최(斬縗), 제최, 대공, 소공, 사마(緇麻)의 5종으로 나뉘어 상복 베의 질을 달리하고 부속물도 달리한다.

복인은 각기 자기 처지에 맞는 상복을 다 입고 명정을 세우고 영좌 앞에 제수를 차리고 분향(焚香)하고 상주로부터 차례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이 때 술잔은 보통 제사(祭祀)와 달리 한잔만 올린다.

성복 후에는 정식으로 조객을 맞이하여 상주와 절을 하게 한다. 조객은 자기 집을 떠나 상가에 오기까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조상와서는 영좌 앞에 분향하고 곡을 한 다음 재배(再拜)하고 상주에게 절하면서 『상사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또는 『갑자기 변고를 당하여 망국하십니다』하고 조의(吊意)를 표하면 상주는 곡하면서 맞절을 한다.

3) 치장(治葬)

장이란 시체를 지하에 埋藏(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장지와 장일을 정한 후에 출상한다. 장지로는 이른바 명당(明堂)자리를 고르는데 이는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따른 것으로 풍수사, 지관들이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예기」에 의하면 사회계급(社會階級)에 따라 장기(葬期)와 장일이 달라 대부(大夫)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을 지내고야 장례를 지냈으며 기한전에 하면 불회(不懷)라 하였고 기한이 지나면 태례(怠禮) 또는 태례(殆禮)

라 하였다. 요즈음은 3일장, 5일장이 일반적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출상 전일(出喪前日) 저녁에 빈 상여를 가져오고 선 소리군과 상여 면 상여군들이 모여「상여놀이」를 한다. 상여놀이는 빈 상여나 혹은 상여 위에 복인(服人)을 태우고 상여군이 발을 맞추어 보고 마당을 몇 바퀴 도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상여줄을 모여서 꼬기도 하며, 상가(喪家)에서는 상여를 잘 메어 달라고 술대접을 한다.

옛날에는 장일(葬日)을 신주(神主)를 만들어 혼백(魂帛)과 같이 영좌에 (靈座) 두고 상주복인(喪主服人)들이 관을 들고 가묘(家廟)에 고한 후 관을 내갔으나 지금은 지방(紙榜)으로 대신하고 가묘(家廟)도 거의 없어져 그냥 나간다. 관이 방을 나올 때에는 관을 세번 울렸다 내렸다 하거나 관으로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오거나 도끼나 톱으로 문지방을 약간 치고 나오기도 한다.

방에서 관을 내온 후 상여 앞에 관을 놓거나 상여에 엎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제를 올리니 이를 「발인제」라 한다. 발인제는 상주로부터 차례대로 행사하되 역시 단작단배(單酌單拜)로 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군이 상여를 들고 세 번 울렸다 내렸다 하직인사(下直人事)를 하고 어깨에 멘 다음 상여머리를 돌려 집을 나선다.

행렬(行列)의 순서는 맨 앞에 명정(銘旌)이 서고 다음에 혼백(魂帛)과, 영영(靈影), 향합(香盒) 등 영좌에 놓았던 것을 담은 영여(靈輿), 다음에 공포(功布), 만장(輓章), 운아삽(雲亞翟) 등이 열을 짓고 다음에 상여, 상주, 복인, 문상객(喪輿, 喪主, 服人, 間喪客)의 순서로 나간다. 예전에는 상여 앞에 귀신을 쫓는다는 가면을 쓴 사람이 칼춤을 추고 갔는데 이를 「방상(方相)」이라 한다.

「예기」에는 없으나 농촌에서 요즘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로전제」가 있다 이는 행상 도중에 상여를 놓고 영여 앞에 제상을 차리고 다시 한번

모두가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으로 길에서 지내는 제라로 전제(路奠祭)라 하지만 곳에 따라서 차자(次子)나 극진한 친구가 망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자기 집 앞을 영구가 지날 때 제사를 올리는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부락에 따라서는 부락앞을 떠나는 마지막 행사라 하여 「고별제」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로전제(路奠祭)을 지낸 후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상여(喪輿)가 출발하면 장지(葬地)에서는 광중(壙中)을 파기 시작한다. 산역(山役)이 시작되기 전에 간단히 음식을 차려 놓고 깨끗한 사람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땅을 헐기 시작한다.

상여가 장지(葬地)에 도착하면 상여 옆에 영좌를 설치하고 과물(果物)을 차리고 조객(吊客)의 조문(吊問)을 받는다.

산역은 지관의 명에 따라 한다. 굴토(堢土)가 끝나면 전에는 굴 껍질과 회를 섞어 그 안을 발랐는데 이를 「회격(灰隔)」이라 한다. 천광(穿壙) 회격(灰隔)이 끝나고 하관(下棺) 시간이 되면 지관(地官)은 하관을 명하고 이 때 살이 있는 사람은 잠시 자리를 피하게 한다.

때를 맞춰 상제들은 상여에서 관을 운반하여 끈을 매고 천천히 광내(壙内)에 내린다. 판은 지관(地官)이 정한 금정(金井)과 시체의 방향에 꼭 맞게 광내에 놓여져야 한다. 시체는 보통 머리를 북쪽에, 발은 남쪽에 가게 하니 이를 「좌문」이라 한다.

관이 반듯이 놓이면 관옆 빈 곳에 석회(石灰)나 세사(細沙)나 황토로 판 높이까지 채우는데 이를 「보토」라 한다. 시체만을 넣을 때는 시체의 윗면까지 덮는다. 그리고 상주가 동심결(同心結)을 역인에게 주면 역인이 시체 가슴 위에 얹는다. 그 위에 다시 명정(銘旌)을 깔고 그 위에 다시 동천개라 하여 참나무나 베드나무 또는 대나무를 흘수가 되게 나란히 놓는다. 판째 넣은 곳에서도 동천개를 덮는 수가 있다. 또 동천개를 다 덮

고 머리 쪽의 것을 하나 벗겨 놓고 계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상주가 먼저 흙을 붓고 역인이 매장을 한다 이때 상주는 삼으로 흙을 떠서 붓기도 하고 또 옷자락에 흙을 담아 시체 또는 관의 위, 중간, 아래 부분의 세 곳에 흙을 조금씩 붓기도 한다. 흙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한번 다진 후에 다시 흙을 넣어 광내(壙内)에 채운다. 한편 산역을 하는 도중 그 옆에서는 영좌와 탁자(卓子)를 놓고 글을 쓰는 제주(題主)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람이 광내가 메워져 평지와 같이되면 평토제를 지낸다. 지방에 따라서는 봉분을 만든뒤 평토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평토제를 끝으로 상주는 영좌의 신주나 혼백을 모시고 오던 길로 다시 집에 간다. 집에 다다르면 주부가 곡(哭)을 하면서 이를 맞아 상청(喪廳)에 모신다.

4) 흥제 | 凶祭

치장(治葬)이 끝난 후 길제(吉祭)까지의 제사(祭祀)을 흥제(凶祭)라 한다. 이는 영좌가 산에서 반흔(返魂)하여 반흔제(返魂祭)를 지내면서부터 탈상(脫喪)까지의 제사를 의미한다.

반흔제(返魂祭)는 시체를 묻고 신주나 혼백(魂帛)만을 모시고 지내는 첫 제사로 곡만 하는 곳도 있고 다음에 본 초우제(初虞祭)를 겸하는 곳도 있다.

우제(虞祭)란 위안(慰安)하는 제사라는 뜻이니 시체를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제(初虞祭), 개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가 있다. 초우제(初虞祭)는 장일(葬日)에 지내는 것으로 장지가 멀어서 당일 영좌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주막집에서 라도 지내야 되는 것이다. 개우제는 초우제(初虞祭)를 지낸 뒤 처음 맞는 유일(柔日), 즉 을, 정, 기, 신, 제일(乙, 丁, 巳, 辛, 祭日)에 지내고, 삼우제(三虞祭)는 개우제(再虞祭) 뒤의 첫

강일(剛日), 즉 甲, 丙, 戊, 庚, 任日에 행하는 것이다.

우제(虞祭)의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집사자(執事者)가 영좌 앞에 나물, 과일, 포, 술 등을 진설하고 준비가 끝나면 혼백을 열어 놓는다. 이 때 상주 이하의 온 가족이 들어와 곡을 한다.

강신 : 집사자(執事者)가 곡을 그치고 하고 상주가 분향하고 재배(再拜)한다. 술잔에 술을 따라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고 모사(茅砂) 위에 조금씩 세 번을 부어 반 잔쯤 남게 제자리에 놓고 개배한 후 물러선다.

進饌 : 어육 등을 먼저 놓고 다음에 밥과 국을 놓고 떡, 부침, 삼사등을 차례로 상 위에 진설(陳設) 한다.

初獻 : 상주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끊고 잔을 받아 술을 붓고 다시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면 집사자는 잔을 받아 제자리에 놓는다. 밥뚜껑을 열어 놓고 초우(初虞) 축문을 읽는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일동은 엎드려 곡을 하고 초헌관(初獻官)이 개배한다.

亞獻 : 두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주부(主婦)가 담당한다. 술을 따라 올린 뒤 일동이 곡하고 아헌(亞獻)관이 사배한다

終獻 : 세 번째 잔을 드리는 것으로 망인과 가장 가까운 근친(近親)이 올리며 남여를 가리지 않는다. 술을 올리고 종헌관(終獻官)만 곡을 하고 남자면 재배, 여자면 사배한다. 마지막 잔이라 철주(撤酒)하지 않는다.

侑食 : 집사자(執事者)가 술잔을 마저 채우고 밥에다 수저를 꽂고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闔門 : 상주 이하 모두 문 밖에 나가 문을 닫고 잠시 기다린다.

啓門 : 기침을 하고 상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동이 따라 들어온다. 국그릇을 물리고 승늉을 올린 다음 수저로 밥을 세 번 떠서 승늉 그릇에 놓는다. 축관이 예필을 고하면 집사자는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상주 이하 모두 곡하고 재배한 뒤 축관은 혼백을 닫고 축문을 태

운다. 초상(初喪) 후 3개월이 지나면 강일(剛日)을 정하여 졸곡제(卒哭祭)를 지낸다. 이는 지금까지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치는 날로 제사의 절차는 우제(虞祭)와 같다. 그러나 전과 같이 조석(朝夕)으로 밥과 국 등 상식(常食)을 영전(靈前)에 올리면서 조석곡을 한다.

졸곡제를 지낸 이튿날은 부제(耐祭)라 하여 조물(昭穆)의 서에 따라 망인의 조고위, 즉 조부(祖父)와 같이 제상을 병설(並設)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

초상 1주년 되는 날 올리는 제사를 소상이라 한다. 제사의 절차는 우제(虞祭)와 유사하나 이 때는 원친도 오고 문상객(問喪客)도 온다. 따라서 음식을 차려 조객(吊客)을 대접하게 되고 다른 제사보다 크게 행사하게 된다. 기념복을 입은 사람은 소상이 끝나고 탈상(脫喪)한다.

초상 후 만 2년이 되는 날이 대양이다. 대상 때는 조객이 더 많이 오기도 하며 크게 행사한다. 소상 삼이후에는 조석곡(朝夕哭)을 그치고 대상에서는 영좌(靈座)를 철회하여 신주는 가묘(家廟)에 안치하고 효장을 폐지한다. 다음의 제사인 선제(禪祭)를 따로 지내지 않으려면 대상에서 탈상한다.

선제는 대상 후 2개월이 지나고 2개월 되는 달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다. 선은 담(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효자의 심정이 이에 이르러 담연평안(詹然平安)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때 탈상하는 것이 원래의례(禮)이다.

길제는 대상 이후 배일되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조상의 신주를 고쳐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상의 상례는 우리 나라에 유학(儒學)이 정착되면서 이룩된 의례이다. 이렇게 유교(儒教)로서 절차와 내용의 틀을 잡았으나, 유교(儒教) 이외의 불

교(佛教), 도교(道教),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무속(巫俗) 등의 제 요소가 많이 혼합되어 있다

2 - 4. 제례(祭禮)

제례라 함은 일가일족의 사사(私事)이며 조상숭배 제의(祖上崇拜 祭儀)이다. 이러한 조상제례(祖上祭禮)는 정속, 대소, 각종(正俗, 大小, 各種)이 있으나, 현재는 다례(茶禮), 기제(忌祭), 시제(時祭)로 삼대별할 수 있으며 그 실제(實祭) 개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례(茶禮)

사당(祠堂)이 있으면 이곳에서 다례(茶禮)를 지내지만 없을 때에는 마루에서 지낸다. 이것은 정조다례(正朝茶禮)인 경우가 그러하고 한식(寒食)과 추석다례(秋夕茶禮)는 집과 묘(墓)에서 각각 지낸다. 또한 의례(儀禮) 절차에서도 사당의 유무에 의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당이 없는 경우는 단현임에 비하여 사당을 모시고 또 묘에서 다례를 지내는 경우는 삼현인 것이다.

제주는 종손이 하며, 참여 범위는 8촌에 한하고 있다. 그리고 종가의 다례를 먼저 지낸 다음에 갈라져 나온 지손의 서열대로 다례를 지내고 있다.

다례시(茶禮時)의 특별한 재물은 정조의 떡국, 한식의 진달래술, 추석의 송편, 동지(冬至)의 팔죽이다.

시간은 보통 해돋는 때 시작해서 12시경까지 끝내도록 하여 정조다례 후엔 묘소(墓所)가 가까울 땐 반드시 성묘(省墓)를 다녀온 다음에 동리 어른들께 세배(歲拜)를 다닌다.

제의절차는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당이 없는 경우는 지방(紙榜)을 모실 때와 신주를 모실 때로 구분되며, 그리고 사당에

서 다례를 지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지방(紙榜)을 모시는 경우 다례를 향옹(饗應) 받을 조상(祖上) 중 가장 윗대, 즉 고조부모(高祖父母)의 지방(紙榜)을 불이고 제물을 진설(陳設) 한다. 종손(宗孫)이 분향·모사·재배(焚香·茅沙·再拜)한 후 일동부복(一同俯伏) · 고축(告祝) · 헌작(獻酌) · 개개반(開蓋飯) · 정저(正箸) · 일동재배(一同再拜) · 하저(下箸) · 일동재배(一同再拜) · 철상(徹床)의 순서로 지낸다 이런 순서로 부모대까지 한번씩 지내며, 그 때마다 헌작(獻酌)을 퇴주(退酒)하고 다 끝나면 음복한다.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먼저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한 다음에 신주를 모신 곳 앞에 후손(後孫)들이 양쪽으로 서서 읍하고 있으면 종손(宗孫)이 재배를 한 다음에 꺼내서 교의(交椅)에 모시고 주독(主櫈)의 뚜껑을 연다. 그리고 일동이 재배(再拜)하며 참신(參神)한다. 자손이 재배하고 분향(焚香) · 모사(茅沙) · 초헌(初獻)하면, 정저(正箸) · 개개반(開蓋飯)한 다음에 제주 재배(祭主再拜)하고 일동 부복(一同俯伏)하여 돌아 앉아 있다가 집사(執事)가 하저(下箸)하고 합개(合蓋)하면 일동재배로 사신(辭神)한 다음에 철상(徹床)한다 신주는 주독(主櫈)의 뚜껑을 덮어 제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의 신주를 내모시고 같은 순서대로 지낸다. 이때마다 역시 떡국을 갈고, 헌작(獻酌)을 퇴주(退酒)하며, 다례(茶禮)를 받을 조상에 대한 다례가 모두 끝나면 음복(飲福)을 한다

사당다례(祠堂茶禮)의 경우 종손과 년장자 5~6명만 사당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후손들은 밖에 명석을 깔고 차례를 지낸다 사당문(祠堂門)을 열고 들어가서 종손만이 재배하고(감실) 龕室에서 주독(主櫈)을 꺼내어 교의(交椅)에 모신 다음에 제물을 진설(陳設)한다. 진설은 앞줄부터 먼저 시작해서 떡국과 반정(飯羹)을 맨 나중에 진설한다. 진설(陣設)이 끝나면 종손이 주독(主櫈)의 뚜껑을 열고 일동이 재배하여 참신(參神)한다. 제주가

분향 · 모사 · 재배 · 초헌(焚香·茅沙·再拜·初獻) 하면 집사가 육자(肉炙)을 올리고, 떡국그릇과 밥그릇의 뚜껑을 열어놓고 모두 부복하여 고축을 한 다음에 곡을 한다. 곡이 끝나면 일동 재배하고 아현하면 계자(鷄炙)을 이어 삼헌(三獻)에 어자(漁炙)을 올린 다음 첨작(添酌)을 한다. 이어 합문(闔門) 하여 밖에 조금 나와 있다가 계문(啓門) 하고 숙냉(熱冷)과 쟁(羹)을 바꾸어 밥을 몇 숟가락 떠서 만다음 정저하고 조금 있다가 하저하여 합개(合蓋)한 다음 일동이 재배 함으로써 사신(辭神)하고 종손이 신주를 감실(龕室)에 넣고 철상(徹床)한 다음에 종손이 재배하고 사당문을 닫는다. 또한 한식과 추석에 모여서 지내는 차례는 같다고 한다. 그러나 묘에서 갖는 차례는 문중의 년장자가 주과포(酒果脯)와 고축으로 산신제를 지낸 다음에 행한다.

종손(宗孫)으로서 매안(埋安) 할 경우는 사당에서 재배하고 주독(主續)을 모시고 나와 묘소 앞에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분향 · 모사 · 헌작 · 고축 · 재배(焚香·茅沙·獻酌·告祝·再拜)한 다음 주독(主續)채로 묘소 앞에 묻는다. 이렇게 하여 그 종손은 그 조상을 한식과 추석 때 묘소에서 차례(茶禮)를 올린다.

2) 기제(忌祭)

기제사의 경우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적인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좀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종가(宗家) 집에서 조차 고조부모(高祖父母)의 기제사는 약화(弱化)하였다.

기제사에서 제주가 종손이 아닐 경우라도 대부분 동고조 팔촌, 즉 당내의 범위에 있으면 같은 동리일 경우 참여한다. 종손도 마찬가지로 당내일 경우 지손(支孫)의 기제사에 참여한다.

제의 장소(祭儀 場所)는 예전에는 안사랑이라고 해서 제사를 모시는 방이

따로 있었으나 현재는 마루에서 하며 제상 뒤에 교의(交椅)를 놓고 병풍을 친다.

제의 절차는 먼저 제물을 진설한 후 제주가 신주를 모셔다가 교의(交椅)에 놓고 주독(主檀)을 연다음에는 일동이 재배하여 참신(參神) 한다. 이어 제주(장자나 장손)가 재배·분향·모사 초현(再拜·焚香·茅沙·初獻)하면 집사가 정저·개개(正箸·開蓋)하고 일동부복하면 고축을 한다. 고축이 끝나는 대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형식적인 곡을 너댓번 하고 일동이 재배한다. 다음에 고인의 가까운 후손이 차례로 아현(亞獻)과 삼현(三獻) 그리고 첨작(添酌)을 하면 다시 젓가락을 굴렸다가 정저하고 삽시(挿匙) 한다. 다시 잠시 동안 일동부복해 있다가 집사가 숙냉을 올려 국과 바꾸어 밥을 서너 수저 숙냉에 말고 잠시 있다가 낙시·복개·퇴작(落匙·覆蓋·退酌) (술잔을 약간 돌려 놓음)하면 일동이 재배하여 사신(辭神)하고 철상(徹床) 한다. 음식이 준비되는 대로 모두 함께 음복(飲福)하면서 집안 일을 의논한다. 그리고 이튿날 동네 어른들 중에서 주로 고령자들을 모셔다가 음식 등을 대접한다.

시각(時刻)은 고인(故人)의 사망일 전날밤 12시를 전후로 해서 지낸다.

3) 시제(時祭)

시제는 기제봉사(忌祭奉祀)의 대상에서 넘어간 조상들의 墓所(묘소)에서 지내는 묘제로서 1년에 한 번씩 음력(陰歷) 10월부터 그 직계후손(直系後孫)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과거(過去)에 높은 벼슬에 올랐던 조상의 묘소 아래에 제실(齋室)을 지어 우천시에는 묘소를 대신하여 제실(齋室)에서 봉사(奉祀)하기도 하고, 막봉사(奉祀) 뒤엔 음복장소(飲福場所)나 문중회의(門中會議)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그 제실(齋室)의

웅장함으로 하여 그 지방에서 그 가문의 위세(威勢)와 단결력(團結力)을 과시하는 상징물로 되기도 한다.

보통은 종손의 기제봉사(忌祭奉祀)의 대상에서 넘어가면 사세손내(四世孫內)의 방계후손(傍系後孫)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최장방(最長房)에게 체친(遞遷)되어 기제봉사(忌祭奉祀)의 대상이 되었다가 시제로 넘어간다. 그와 동시에 후손들이 그 조상의 시제를 위한 위토(位土)를 장만하여 묘지기를 두어 관장하게 한다. 한편 그 조상이 현달(顯達)하여 과거 왕조로 부터 하사받은 사패지(賜牌地)가 있을 경우엔 그것으로서 위토를 삼기도 한다.

3. 세시풍속(歲時風俗)

시흥군은 우리 나라 수도인 서울의 관문이다. 따라서 조선 이전에는 백제(百濟), 고구(高句)려, 신라(新羅) 그리고 고려(高麗)가 서로 홍기(興起)하는 가운데 각각의 영향을 받아 풍부하고 다양한 歲時風俗과 娛樂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의 서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오게 되고, 한편 19세기 말 경부터는 서울에서 본격적인 서구문화(西歐文化)가 가장 빨리 침투하게 된 지역이고 보면 다른 군과는 달리 풍부한 민속(民俗)을 지닌 반면 그 변형도 심한 고장이라고도 하겠다.

시흥군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월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 1 정월(正月)

음력 정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므로 그만큼 복된 한 해를 비는 의미에서 행사나 놀이도 어느 달보다 가장 많다. 특히 정월 선보름이고 하여 1일에서 15일까지에는 집단적, 개인적 놀이와 행사가 성행하는 달이다.

1) 설날

「설빔」또는 「설비음」이란 설날 아침에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어린 아이에게 많이 쓴다. 온 집안식구가 설빔으로 갈아 입으면 다례준비에 들어간다.

같은 종족들은 모두 종가집에 모여 4대조의 다례를 뒷 대에서부터 지내게 되는데, 사랑문을 열고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거나 신주가 없는 집은 지방(紙榜)을 써서 붙이고 지낸다.

다례가 끝난 다음에 음복이라고 하여 제사에 쓴 술이나 다른 음식을 제판이 그 자리에서 나누어 준다. 특히 정월 다례뒤에는 음복과 곁들여 도소주(屠蘇酒)를 마신다. 도소주에는 술에 산초·방풍·백출·밀감피·육계피(山椒·防風·白朮·密柑皮·肉桂皮) 등을 조합하여 만드는데, 이것을 마시면 1년의 아기(邪氣)를 없애고 오래 산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풍속이다. 이 풍속에서 나중에는 보통의 술도 도소주라고 하여 모두 둘러앉아 마시었는데, 특이한 것은 「송곳이 끝부터 들어간다」하여 나이 어린 사람부터 먼저 먹기 시작하여 차차 나이가 많은 노인의 순으로 마신다.

성묘(省墓)는 다례 때 쓴 제수(祭需) 이외에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별도로 장만하여 산소 앞에 뜻자리를 깔고 자손들이 모두 들어서서 하되, 가장 웃대 산소에서부터 차례로 한다.

다례가 끝난 뒤에 세배를 하는데, 조부모 내외분, 아버지 어머니, 백숙부모, 형제 등의 순서로 하고 새해인사를 드린다.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청을 모신 집에 가서 상청에 조문하고 상주에게 인사한 다음에 일가 친척 중에서 나이가 많고 항렬이 높은 어른에게서 시작하여,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 그 다음에 나이 차례, 항렬(行列) 차례로 세배를 행한다.

2) 정초의 십이지지(十二地支)에 대한 풍속

정월 첫번째 닿는 쥐날에는 아이들이 논둑 밭둑에 불을 놓는다. 요새는 대보름에 달을 보기위해 놓는 달불을 쥐불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통용하여 쥐불이라고 한다.

정월들어 첫번째 맞는 축일(丑日)을 소날이라고 하여 소 돌보는 날이다. 농사에 가장 귀중한 가축이 소이므로 소를 잘 돌보고 소와 관련된 도구나 음식을 잘 관리하여 그 해에 더욱 일을 잘하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음양가(陰陽家)에서는 인생어인(人生於寅)이라 하여 사람은 호랑이 정기(精氣)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정월 첫번째 인일을 사람날이라고 하여 아침 일찍 여자의 바깥 출입을 금하고 사람에게 경사되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한다.

정월 첫번째 맞는 묘일(卯日)을 톳날이라고 하여 톳끼처럼 방정맞고 경망한 짐승을 경계하듯이 집안에 하인이나 여자 등을 절대 들어보내지 않는다.

정월 첫번째 맞는 사일(巳日)은 머리를 빗으면 집안에 뱀이 성한다고 하여 머리를 빗지 않는다.

매월(毎月)마다 있는 인동토일 중 정월에 맞는 인동토일은 더욱 나쁘다고 하여 혼인을 지내거나 머슴 등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3) 14일

정월 14일을 「작은 보름」이라고 하여 초하룻날 이후에 가라 앉았던 명절기분이 다시 일기 시작하여 15일을 고비로 정월의 명절은 끝이 난다. 이날은 새해 농사를 위한 준비태세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열 나흘날은 모두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아홉 번을 채운다. 나물을 캐도, 밥을 먹어도 아홉번 하며 매도 아홉번 맞는다. 보름은 여자의 명절이기도 할 정도로 여자에 관한 놀이 및 행사가 많다.

이날은 또 아침 식사에는 고기불이와 김치를 먹지 않는다. 먹으면 부정을 타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하다. 그리고 점심겸 저녁으로 밥을 지어 먹는데 콩·팥·수수·기장 등 5가지 곡식을 섞은 오곡밥을 먹고, 복쌈이라고 하여 시래기·취파위 나물을 삶아 반찬으로 먹는다. 세집 이상의 타성(他性)집 밥을 먹어야 한다는 관습도 있어 서로 남의 집에 찾아가 밥을 얻어 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백가반(百家飯)이라고 한다.

4) 15일

정월 보름날 이른 새벽에 밤·잣·호두 등을 깨무는데, 이것을 부럼(腫果)이라고도 한다. 부럼을 하면서 1년 동안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른 새벽에는 또 귀앓잇병에 걸리지 않도록 귀밝이술 (耳明酒)를 마시기도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무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더 익 사시오』라고 소리질러 더위를 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 년 내내 더위를 모르고 지내게 된다.

또한 「용알뜨기」라고 하여 이른 새벽에 맨 먼저 우물물을 떠가는 사람을 용이 그 전날 밤에 낳은 알을 길어가게 되므로 운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속이 있다. 이렇듯 정월 보름날의 아침은 매우 부산하다.

달맞이는 새해 들어 첫번째 맞는 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속행사나 놀이 등이 풍부하다. 예컨대 달집짓기라고 하여 달맞이 하기전에 마을의 뒷동산 높은 마루에 달집을 짓는가 하면, 달이 뜨기 시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재수가 있고 소원 성취한다 하여 달이 뜰

지점을 미리 알아 가지고 서로 먼저 보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개인 액막이가 있다 불놀이는 앞서 쥐불을 논할때 설명 하였다

5) 16일

16일은 귀신날, 또는 귀신불은 날이라 하여 이 날은 온 동네 사람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푹 쉰다. 남자가 일을 하면 1년내 우환(憂患)이 있고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3 - 2 월

1) 1일

음력 2월 1일은 영동 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 한다. 이 할머니가 2월 1일에 세상에 내려와서 두루 민가를 시찰하고 20일에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에 있었던 일을 간추려 하느님께 아뢴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어느 때에는 머느리도 데려오고 어느 때에는 딸도 데리고 내려오는데,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 때에는 딸을 호사시키느라고 바람이 몹시 불게 되고 이 바람에 딸이 입은 다홍치마를 휘날리게 하여 딸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해에는 흉년이 든다. 머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는 때에는 머느리 보기싫어 다홍치마 얼룩지라고 비가 내리는데 2월 1일에 비가 내리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20일에 올라갈 때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2월 1일은 또 농가에서는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2월이 되면 농사준비를 해야 하므로 농사에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머슴을 위로한다. 그 밖에도 2월 1일에는 나이떡을 해 먹기도 하고 콩을 볶아 먹으면서 곡식을 축내는 새와 쥐가 없어지길 바란다.

2) 좀생이 보기

2월 6일에는 저녁에 동네마당이나 높은데 올라가서 좀생이를 본다. 좀생이는 28성수 중 앙성(昂星)인데, 작은 별이 한데 모여 하나의 성군을 이루고 있다. 좀생이를 보고 그 해의 농작상태를 짐치기도 한다. 예컨대 좀생이가 달보다 앞서서 가면 그해는 대풍(大豐)이 들고, 달과 평행으로 가면 평년이고, 달보다 뒤떨어져 가면 흥년이 드는데 뒤로 멀리 떨어져 가면 큰 흥년이 든다고 한다.

3) 한식일(寒食日)

한식일은 언제나 동지(冬至) 후 105日째 되는 날로 잡는다. 그러므로 음력으로는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한식날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채소씨를 뿌리기도 한다. 한식에는 찬 밥을 먹고 성묘묘(省墓)를 가는 것이 큰 행사이다.

3 - 3 3월

1) 삼짓날

음력 3월 3일을 삼짓날이라 한다. 이 날에는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기대에 들뜬다. 완전히 봄이 되었으므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며 봄기운으로 초목과 개구리, 나비 등이 눈에 띈다. 사람들은 짐승들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보느냐로 길흉과 신수를 점쳐 보기도 한다.

2) 장담그기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날을 가리어 메주를 쑤고 이를 뎅이 지어 천장

에 매달기도 하고 웃목에 안쳐 놓기도 한다. 3월이 되면 겨우네 뜬 메주를 쪼개어 말렸다가 날을 가리어 간장을 담그는데 쓰게 된다.장을 담글 때에는 장독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으며 장독대에 차례를 따라 늘어 놓고 언저리에 고추, 속 따위를 꿤 새끼를 장독 아가리께에 동여맨다. 부정을 금하기 위한 조치라 한다.

그밖에도 3월이 되면 나무나 풀 등에 물이 오르므로 이러한 물 오른 나무줄기를 이용하여 악기를 만드는 풍습도 있으며, 물이 오른 풀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장난감도 만들고 놀이도 한다.

3 - 4. 4 월

1) 초 8 일

4월의 큰 행사나 놀이는 「초파일」을 제1로 꼽는다. 이 날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라고 하여 불가의 큰 명절이다. 육불일이라고도 하여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은혜를 온몸에 입는다는 뜻이다. 이날은 절을 찾아가 재를 올리고 저녁에는 연등(燃燈)이라고 하여 등에 불을 붙여 온 집안, 온 마을에 달아 놓는다. 그리고 등을 들고 여러 신자들이 줄을 지어 거리를 돋다. 이것을 제등행렬(提燈行列)이라고 한다.

가정에서는 등을 가족수 대로 만들어 촛불을 밝힌다. 등은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끝머리에 꿩꼬리의 털을 꽂기도 하고 물 들인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다는데 이것을 호기(呼旗)라고 한다. 또 나뭇가지 추녀 끝에 줄을 매고 그 줄에 등을 달아 두기도 한다.

3 - 5. 5 월

음력 5월 초 닷세날은 단오(端午),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 중오

절(重五節), 수릿날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농촌의 명절로서 각 가정에서는 산에 나는 수리치의 어린 쑥을 뜯어다 떡을 빚어 먹기도 하고 여자들은 창포(菖蒲)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 뛰며, 남자들은 씨름 따위로 온 하루를 즐긴다.

단오날에는 논에 나는 창포를 뿌리채 뽑아다가 삶아서 그 물에 머리를 감는다. 옛날부터 여자는 머리 채가 길고 윤이 나야 좋다고 했기 때문에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윤기가 난다고 하여 이를 행했다. 그리고 창포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온종일 꽂기도 하며 창포뿌리 끝에 붉은 칠을 하여 머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도장처럼 세 군데를 빨갛게 찍어 두기도 한다.

단오날의 놀이로는 그네뛰기를 첫째로 꼽는다. 그네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가로대를 대고 여기에 두 줄의 밧줄을 매고 밧줄 아래에 밀실개를 엮어 놓는다. 밀실개에 올라서서 발에 힘을 주어 구르면 앞뒤로 까맣게 솟는다. 혼자 뛰면 외그네요. 둘이 뛰면 쌍그네이다.

씨름은 각희(角戲) 또는 각희(脚戲)라고도 하는데 단오날에 씨름터를 마련하고 남자 둘이 서로 맞붙어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데 그 하는 방법이나 재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봉선화 물들이기는 화장품이 단순하던 옛날에 여자의 본성으로서 곱게 보이려는 뜻도 있고, 봉선화 물이 손톱에 드는 호기심도 있었겠으나, 그 방법도 빨간 빛은 귀신을 쫓는다는 풍속에서 모든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생각도 있다. 봉선화는 매우 소담한데 음력 5월쯤이면 모두 활짝핀다. 봉선화 꽃잎을 따서 잡티가 들어가지 않게 잘 다듬어 이것을 백반을 깨뜨린 가루와 함께 넣고 짓찧는다. 그러면 빨간 앵두빛의 떡처럼 되는데 이것을 손톱에 바르고 싸서 하루 저녁 재우면 봉선화 물이 손톱에 빨갛게 들게 된다.

음력 5월은 대체로 하지절후(夏至節候)이다. 그 때쯤이면 모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특히 이때 해마다 가뭄이 드는 경우가 많다. 조선조(朝鮮朝) 3대 태종이 가뭄을 걱정하다가 승하할 때 상제(上帝)에게 비내리기를 간청했는데 비가 정말 내려주었다 하여 이날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하게 되었다.

3 - 6. 6월

음력 6월은 「썩은달」이라 하여 대체로 비가 많이 오고, 소서, 대서(小暑, 大暑)의 절후로써 더위도 한창인 때이다. 대표적인 세시풍속(歲時風俗)으로는 유두(流頭)와 삼복(三伏)이 있겠다.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流頭日)이라 한다. 이 말은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등에 「육월망일 육발어동유수 불제불상」 또는 「취동유수두목욕(就東流水頭沐浴)」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유두(流頭) 날쯤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이다. 그래서 이날은 맑은 냇물을 찾아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즐겁게 논다. 이렇게 하면 불길한 것을 쫓고 무사하게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또 이날 참외, 수박 등 새로운 채소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것을 따다가 신위(神位)나 사주에게 먼저 바치고 나서 사람들은 나중에 먹는다. 이것을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상숭배, 추원보본(祖上崇拜, 追遠報本)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또 이날은 밀전병, 밀역 등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하지(夏至)를 기점으로 하여 세번째 드는 경일(庚日)을 초복, 네번째 경일을 중복, 그리고 입추(立秋)부터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한다. 그리고 하지 후 네번째 경일과 입추 후 첫번째 경일 사이가 10일이 넘으면 월복(越伏)이라 하여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된다.

이 동안이 1년 중 가장 더운 철이고 모든 농사가 이때에 부쩍 는다. 그리하여 이 더위를 이기는 한 방법으로 초복날에는 개장국을 끓이고, 소주를 가지고 정자나무 밑이나 그늘진 곳에서 흥겹게 논다. 이것을 「복다림한다」고 한다.

또 햇병아리에 인삼을 넣어 고아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삼계탕(蔴鷄湯)이라고 한다.

중복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중복 복다림이라 하며 말복날도 같다. 초복, 중복, 말복(初伏·中伏;末伏)에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지친 몸을 보(補)하는 것을 통틀어 「복다림」이라 한다

3 - 7. 7 월

음력 7월은 농촌에서는 바쁜 농사일이 거의 끝나고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극성스러운 더위도 한풀 꺾이어 망중한(忙中閑)을 즐길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라 한다. 논도 다 매고 밭의 김도 다 뽑고 하여 겨울철나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이 달이 지나간다는 뜻이다. 이달에는 칠석과 백종일(百種日)이 있다.

7월 7일은 칠석이라 하여 농촌에서는 슬거운 명절 중의 하나이다. 칠석날이면 하늘의 성군 중 견우성과 직녀성이 1년만에 한번 만나는 날이고 만나면 하도 반가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이날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마가 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칠석물 잔다」고 한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銀河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바라보기만 하는데 이것을 딱하게 여긴 까막까치가 그 몸을 서로 이어서 다리를 놓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했다 하여 오작교(烏鵲橋)라는 이름이 생겼고, 칠석날이 지난 아침에는 까마귀, 까치들이 텔을 가느라고 머리털이 많이 벗어지는데 이것은 오작교(烏鵲橋)다리 놓은 데

를 견우·직녀가 밟고 지나가서 머리털이 빠졌다고 한다.

이 날은 밀전병을 부치고, 가지, 고추 등 햇것을 천신(薦新)하고, 나물을 무치어서 햇곡식 맛을 본다. 또 이날 여름 옷을 뺏아 챙겨두고 책을 넣어 말린다. 이것을 폭서(曝書)한다고 한다. 여름철의 장마와 더위 때문에 옷이나 책이 습기에 차서 못쓰게 되므로 장마도 걷히고 더위도 한풀 꺾인 7월의 칠석날에 행하는 것이다. 또 동네에 따라서는 우물을 쳐내기도 한다. 이것도 농사일이 끝난 한가한 때에 여름내 더위에서 발생한 불길한 것을 제거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음력 7월 15일을 백종일(百種日), 백종절(百種節)이라고 한다. 뒤에 불교의 영향으로 우란파다(盂蘭波多)에서 우란분(盂蘭盆)으로 변하고,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한 망혼일(亡魂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때는 농사일이 완전히 끝나고 참외·오이 따위는 끝물이고 가지, 고추 따위가 만발한 시기이다. 이런 새로 난 과실, 채소들을 조상의 영에 드리는 천신(薦新)하는 풍속이 있고, 이때에 장이 서는데 이것을 백종장이라고 한다. 백종장에는 농군들이 사방에서 모여 드는데 특히 머슴들은 농사일이 끝나서 하루를 푹 쉬면서 지친 몸을 보충하는데 가장 알맞는 때이다. 그러므로 장터에서 서로 만나 여름동안 지난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리고 술, 밥, 떡, 고기 등을 마련하여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물고기를 강에 넣어 살려 보내는 방생(放生)의 모임을 갖기도 한다.

음력 7월은 농사일 중 갈고 김매고 하는 일은 일단 끝난 달이다. 그러므로 7월 15일은 전후하여 여름동안 논을 매고 밭을 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연장인 호미를 잘 씻어서 다음 해의 준비를 위하여 깊숙히 보관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서연(洗鋤宴)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농사가 일단 끝난 것을 의미하며, 술을 빚고 떡을 하며 온갖 음식을 장만

하여 농사일에 애쓴 머슴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두레 농사를 짓는 고장에서는 이날 농악(農樂)을 치고 홍겹게 놀고 난 다음 이 농악기(農樂器)역시 손질하여 잘 보관한다. 즉 농사가 끝났으므로 다음대의 농사에 대비하려는 조치이다.

3 - 8. 8 월

음력 8월은 농촌에서 가장 즐거운 달이다. 여름 동안의 농사는 결실을 보게 되고 오곡백과(五穀百果)가 풍성하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라고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기에 즐겁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음력 8월 보름의 가위날은 모두 성묘를 간다. 성묘를 갔을 때 산소의 封墳(봉분)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 절을 하려 하여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면 이 이상의 불효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8월로 접어들면 우선 산소에 가서 배례를 하고 봉분을 비롯한 그 주위의 풀을 정성껏 깎는다. 이것이 별초(伐草)이다. 이 별초(伐草)는 겨울철에 흰 눈이 온 산을 뒤덮었을 때에 산소 주위의 눈을 쳐 내는 작업과 마찬가지로 묘소(墓所) 관리에 대한 자손들의 정성 표시인 것이다.

음력 8월 15일을 가배일, 중추절(嘉俳日, 中秋節), 가위, 한가위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이중 가배일(嘉俳日)은 가위날을 취급하여 표기한 것이다. 8월은 기후로 보아 춥지도 않고,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만발한 시기이고, 하늘은 높고 푸르다. 이중 15일에는 쟁반같은 달이 중천에 떠오른다. 이 날은 여러 가지 놀이와 행사가 있다.

우선 아침나절에는 합쌀로 빚은 송편으로 다례(茶禮)를 올린다. 그리고 온 일가 친척이 둘러 앉아 음복을 하고 아침을 먹은 다음에는 간소한 주과포(酒果脯)를 가지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저녁나절이면 풍물

을 앞세우고 동네를 돌면서 즐겁게 논다. 예를 들면 「거북놀이」, 「소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솟잎을 따서 한 가운데 모습을 지어 길게 엮는다. 이것을 몇 개 이어서 마치 멍석처럼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까불거리며 걸어간다. 그러면 마치 거북이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거북이 임자가 뒤에 서서 『거북아 거북아 만세 거북아 잘도 먹고잘도 놀아라』하고 외치면 풍물도 여기에 맞추어 농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동네에 광작(廣作)하는 집마당에 가서 홍겹게 놀면서 갖은 덕담으로 그 집을 추켜 세운다. 그러다 거북이 쓰러지면 거북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면 그 집에서는 이것을 신호로 미리 준비하였던 술·떡·과실들을 푸짐하게 내온다. 그러면 여기서 배불리 먹고 즐기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하여 온 동네가 술 풍년, 떡풍년, 노래 풍년이 든 듯하다. 이 거북이 놀이를 소놀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음력 8월 15일은 농촌에서는 정월 설보다 근친(觀親)하기에 알맞는 계절이다. 망친(亡親)은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외지에 나가 있던 아들딸이 어버이께 뵙고 문안드리는 것을 말한다. 아들의 근친(觀親)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 여자는 누구나 시집을 가기 때문에 친정(親庭)어버이께는 근친(觀親)을 해야할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음력 정월에는 여자의 나들이는, 정월 초순에 여자가 남의 집 출입하는 것을 꺼리는 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8월은 농사의 바쁜 일도 끝나고 오래 떨어져 있는 부모도 보고 싶으므로 이 추석날은 대체로 근친(觀親)을 많이 간다. 가까운 곳에서는 「반보기」라 하여 시집과 친정의 중간지점에서 서로 만나 그동안 못 보았던 회포를 푸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3 - 9 9 월

음력 9월 9일은 중구(重九) 또는 중양절(重陽節)이라 한다. 중구는 구자가 겹쳤다는 뜻이고 중양은 양이 겹쳤다는 뜻이다. 주역 周易 에서는 흘수의 1, 3, 5, 7, 9는 양이고 짹수의 2, 4, 6, 8, 10은 음이다. 이 철은 갖은 국화(菊花)가 만발하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9월은 국월(菊月)이라고 하고,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므로 국추(菊秋)라고도 한다. 이 국화중 재래종 국화는 그 향기가 맑고 극히 강렬하다. 이것을 따서 술을 빚은 것이 국화주(菊花酒)요,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團子)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국화전(菊花煎)이다. 이 국화주(菊花酒)와 국화전(菊花煎)으로 즐기는 날이 9월 9일이다.

또 이때쯤이면 약초(藥草)가 한 고비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구절초(九折草) 또는 구절초(九節草)는 이때가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산에나 들에 가서 구절초를 뜯는다. 이 구절초는 약재로 매우 중요시 된다.

3 - 10. 10월

음력 10월은 「상달」이라고 한다. 이 달에는 농사 일 중 가장 중요한 가을 걷이와 타작(打作)이 완전히 끝나서 농가에서는 겨울 휴가로 들어가는 달이다. 그러므로 가을일 뒤에 차분히 행하는 행사가 많다.

1) 말날(馬日)

음력 10월 들어 첫번째 드는 오일(午日)을 말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특히 말을 위하는 풍속이 있다. 이 날에는 팔떡을 하여 마굿간 앞에 차려 놓고 말의 건강을 빙기도 하고, 그대신 팔죽을 쑤어 놓고 빙기도 한다. 이 풍속이 확대되어 「가을떡」을 하게 되었다.

가을떡은 대체로 10월에 드는 무오일(戊午日)을 가려서 하는데, 이 무「戊」는 무「茂」로 통하므로 상마일(上馬日) 또는 무말날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특히 무시루떡을 쪘서 토주신에게 고사를 지내어, 금년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온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며 내년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그리고 온 동네에 「가을떡 도른다」하여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안댁굿(安宅굿)」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떡본김에 굿한다」든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하는 속담이 있다

2) 시제(時祭)

우리 나라 풍속에 4대조까지는 집에서 제삿날 기제사를 올린다. 그러나 5대 이상이면 신주를 산소에 묻거나 불에 살라 버리기 때문에 신주도 없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날을 정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시제이다. 시제는 대체로 10월 1일에서부터 15일 안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가 들에서 제사 지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3) 손돌날(孫芻日)

음력 10월 20일은 손돌날이라 한다. 김포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물이 소용돌이쳐서 뱃길로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손돌이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배에 태우고 이 바닷길목을 지나다가 그 귀한 사람이 「손돌」이가 고의적으로 자기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온 것으로 오해하여 죽이었다. 이 손돌이 원통하게 죽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죽은 날과 별안간 춥고 비바람이 치는 일과를 연관시켜 생각한다. 그래서 이날을 「손돌이 날」 또는 「손돌날」이라고 하여 겨울옷을 준비하여 월동(越冬)

할 준비를 하게 된다.

4) 김장

우리나라에서 「김장은 반양식」이라 하여 겨울철의 반찬으로 김장을 담그는 풍속이 있다. 김장을 담그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입동의 전 삼후삼이라 한다. 즉, 입동을 전후한 6일 동안이 최적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입동이 대체로 음력 10월에 든다. 그래서 10월은 김장달이라 하여 겨울 먹을 김장을 담근다.

김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담그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며 여기 들어가는 양념도 가지각색이다. 부녀자들은 김장철이면 모두 자기 솜씨껏 김장을 담그느라고 열을 올린다. 그리고 시흥군에서는 개성의 보쌈김치를 일품으로 친다.

3 - 11. 11월

11월은 한 겨울로 접어드는 달이다. 그리고 겨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동지가 바로 이 달에 들었기 때문에 달 이름도 「동짓달」이라 한다.

1) 동지 (冬至)

동지는 양력(陽曆)으로는 대체로 12월 22일이나, 음력(陰曆)으로는 11월에 드는 경우가 많다. 동지날에는 「동지팥죽」이라하여, 특별한 집안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팥죽을 쑨다. 팥죽에 찹쌀가루로 새알만큼 씩한 동그란 단자를 만들어 넣는데, 이것이 새알심(鳥卵心)이다.

팥죽을 쑤어 놓고 기다리다가 동지시가 되면 대문위나 담의 벽등에 뿐린다.

어느 집안에서는 사당에 팥죽으로 다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장팡 등

에 한 그릇씩 펴다 놓기도 한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둘러 앉아 먹는다. 팔죽은 그 빛이 검붉다. 귀신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 팔죽을 뿌리면 못된 귀신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하여 온 집안에 뿌린다. 어느 고장에서는 팔죽을 동네 앞의 큰 고목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악귀나 아귀(邪鬼)가 그 동네에 침입하지 못하여 동네가 무사 태평하다고 한다.

3 - 12. 12월

음력 12월은 1년 중 마지막 가는 달이고, 가장 추운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추위의 절정인 소한·대한 등의 절기가 대체로 이 달에 듦다.

1) 脣享 (납향)

동지로부터 세째번에 해당하는 미일(未日)을 납향(獵享)이라고 한다. 이 날은 대체로 음력으로 12월 중순(中旬)쯤이 된다. 이 날은 1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신에게 보고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 지내는 제사를 「납향제」(獵享祭)라고 하는데, 이 날 제사 지내는 풍속은 이제는 거의 없어져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 날은 또 참새의 수난일(受難日)이다. 이 날 밤에 새를 잡아 구워서 아이들을 먹이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추녀밑이나 나무등치에 앉은 새를 잡는다. 또 이 날 내린 눈은 약이 된다고 하여 독을 열어놓고 눈을 받기도 한다.

2) 뮤은세배

세배는 새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달 그믐날, 즉 제석(除夕) 날은 1년의 마지막 가는 날이므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인사로서 마치 정월 달

*

에 세배를 하듯이 어른이나 일가를 찾아 다니며 세배를 한다. 이것이 둑은 세배이다. 또 이날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기도 하는데 초롱불을 들고 밤 늦게까지 다닌다.

3) 딱총놀이

음력 설달 그믐날 한 밤중 쯤에 생대를 꺼어서 이것을 불에 태운다. 그러면 대가 타면서 그마디가 불에 달아서 쪼개지느라고 딱딱하며 큰 소리를 낸다 이것을 「폭죽」 또는 「대총」, 「대불」이라고 한다. 이런 풍속에서 음력 정초에 아이들이 딱총을 가지고 노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숨어 있던 악귀가 그 소리에 놀라서 멀리 달아나게 되므로 집안이 깨끗하고 무사태평(無事泰平)하게 보낸다고 한다.

4) 밤새우기

섣달 그믐날 밤은 집의 방, 뜰, 부엌, 변소 등은 물론 뒤틀 안에까지 불을 밝힌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 이것을 수세(守歲)한다고 한다. 만약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밀가루를 참기름에 반죽하여 눈썹이 하얗게 되게 바른다. 이것을 「눈썹 세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마다 눈썹이 세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가 감시하느라고 뜬눈으로 밤을 지낸다고 한다.

집안에 둑은 약은 모조리 내어다 불살라 버린다. 이것은 약의 냄새를 따라 모든 질병이 없어지라는 액막이다. 그리고 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한다. 이렇게 하여 둑은 것을 모두 깨끗이 청산하고, 맑고 깨끗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한다

3 - 13. 윤달

윤달은 음력으로 12월 외에 더 드는 어느날 달을 말한다. 그런데 그

드는 달은 .일정하지가 않다. 2월에 들면 윤 2월이고 3월에 들면 윤 3월이다 그런데 음력 11월, 즉 동짓달에는 이 윤달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하여 하기 싫은 일이나 깊기 싫은 일을 말할 때에 『윤동짓달 초하룻날 한다』는 말을 흔히 쓴다.

윤달은 12개월 외에 더 있는 달이므로 「덤달」이니 「공달」·「여벌달」이라고 하여 이 달에는 꺼릴 일이나 피할 일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윤달에는 송장을 꺼꾸로 세워도 탈이 안난다」는 속담이 있다.

이 달에는 혼인, 집 수리, 이사, 사초(莎草)들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의(壽衣)도 이 달에 만들어 둔다. 이 달에는 불정(不淨)이나 액(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달 든 해에는 절에 세번가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복이 온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이름 있는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4. 오락(娛樂)

4 - 1. 집단놀이

1) 두레놀이

두레는 농촌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 동네 장정(壯丁) 모두가 두랫군이 된다 두레를 상징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農旗)가 있다 한 두레에는 팽과리를 중심으로 하여 정·북·장구·소고, 범고 등의 악기가 갖추어져 있다. 삼사십명의 농군이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심 먹고 난 뒤와 같은 쉴 때에 각기 농기(農旗)를 꽂아 놓고 그 아래에서 흥겹게 한 바탕 논다. 그리고는 장구잡이와 팽과리, 정, 북잡이 등만 남겨 놓고 모두 일터에서 일을 한다. 동작에 따라 농부가 풍년가(豐年歌) 따위에 맞추어 농악을 울리고, 일꾼들은 노래로 피로를 줄어가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잊고, 일이 능률적으로

되는 것이다. 농사 일이 끝나면 농악기(農樂器)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팔월 보름, 음력 정월 초 하룻날, 보름날, 동네 굿하는 날 따위와 같이 이름있는 명절이나 동네 공동 이익을 위한 행사에 온 동네 사람이 두레를 놀아가며 즐겁게 논다.

2) 거북놀이

정월 정월 보름날에 행하는 고장도 있으나 대체로 음력 8월 보름날 한다. 두 사람 이상이 엎드리고 그 위에 명석을 써우거나 수솟대로 발을 넓게 엮어 뒤집어 써운다. 그러면 마치 거북이 모양처럼 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북을 앞세우고 농악을 치면서 동네의 큰집을 찾아다닌다 거기에서『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세 거북아 놀아라』하며 음악을 연주하면 이 거북이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거들거리고 논다 이렇게 한바탕 놀면 집 주인은 술과 떡 등을 내어 일동을 대접한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간의 쌀을 거두어 동네 일의 기금을 삼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며 온 동네를 돈다. 거북이 다녀간 집은 재앙이 달아나고 복이 온다고 하여 다투어 거북을 맞이하기도 한다.

3) 장치기

나뭇군이나 농사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전하여 오는 놀이로 장치기가 있는데, 현재에는 축구, 농구 따위의 구기(球技)가 보급됨에 따라 자연 소멸되어가고 있다.

나무 공이를 주먹만하게 둥글게 깎는다 이것이 공이다 양쪽에 돌이나 땅바닥을 그어 문을 만든다 그리고 두편으로 갈라 서서 각각 작대기를 가지고 이 공을 쳐서 상대편의 문밖으로 쳐내서 이기고 짐을 결정하는 놀이이다 공도 딱딱하게 작대기로 함부로 치는 놀이이므로 위험

성이 뒤따른다.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치는 것을 편공치기 또는 편장치기라고 하는데, 썩썩하고 남성적인 면도 있으나 너무 거칠어서 위험성도 크다.

4)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우리 나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놀이이다. 동네에서는 남녀로 가르기도 하고, 한 동네와 다른 동네와의 동네 대항도 있고 아랫뜸 윗뜸과 같은 부락대항도 있다.

대체로 정월초부터 보름 사이와 8월 명절, 5월 단오(端午), 7월 백중(伯中)등에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적놀이의 하나이다.

4 - 2. 개인놀이

1) 갈퀴치기

나뭇군들이 갈퀴를 던져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놀이로서 「칼땅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갈퀴를 쥐고 뻣 돌리면서 힘껏 던져서 갈퀴가 엎어지면 이기고 젖혀지면 지는 것이다. 또는 옆으로 던지기도 하고 뒤로 던지기도 한다.

대체로 나뭇짐을 걸고 내기를 해서 나무를 따먹기도 한다. 전 사람은 자기 나무는 못하여도 이긴 사람에게 나무를 한짐 주어야 하고, 이긴 사람은 나무는 안하고 삶컷 참만 자도 된다

2) 고 누

종이에 그리기도 하고 임시로 땅바닥에 말밭을 그려 놓고 돌이나 작은 나뭇가지 또는 종이 따위로 자기 말을 삼아 하나씩 놓아 가면서 상대편의 말을 먼저 따먹거나 많이 따먹음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물고누, 네발고누, 여섯발고누, 열두 발고누, 호박고누, 물레고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우물고누란 네모지거나 박달모양으로 된 틀에 X자를 그려 놓고 이쪽 저쪽에서 각각 말 두 필씩으로 두어나간다. 한 쪽은 티어 놓았는데, 그쪽으로는 말이 가지 않는다. 「우물 고누 첫수」란 말이 있듯이 먼저 두는 사람이 이쪽을 꽉 막으면 한 수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수는 두지 않기로 되어 있다. 빈 발이라고는 하나 밖에 없어서 이쪽 길만 막으면 말이 갈 데없이 갈 히어서 지게 되는 것이다. 고누 중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것으로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고누에 익숙하면 다른 고누는 쉽게 익힐 수 있다.

3) 골 패

손가락 마디만한 검붉은 나무나 뼈의 바탕에 그와 똑같은 크기의 흰 뼈를 붙이었는데, 흰 뼈에는 한 구멍에서부터 여러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모두 서른 두 짹이 한 목인데 구멍수에 따라 백아(쥐코), 아사, 어사, 관이, 아륙, 삼사, 삼오, 삼륙, 사오 각 한 짹이고, 풍소, 소삼, 백오, 백륙, 진이, 장삼, 직홍, 준오, 사륙, 오륙, 준륙이 각각 두 짹인데 두 사람 혹은 너덧 사람이 둘러 앉아서 한 짹을 내고 한 짹을 맞추고 하는 놀이이다. 예시, 골여시, 짹찌기 등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마작의 원시적인 형태이다.

4) 투전

두꺼운 종이로 넓이는 대체로 1cm 안팎이 되게 만들었는데, 본래는 인물(人物), 조수(鳥獸), 충어(虫魚)들을 그리고 있었다. 후에 와서 숫자를 위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었다. 80장, 60장이 한벌이 되어 실지 놀이에서는

40장만 가지고 사용한다. 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5) 화 투

화투는 우리 나라 고유한 것은 아니고 일본 전래설이 유력하다. 너무 잘 알려진 놀이여서 생략하기로 한다.

6) 낫치기

나무꾼이나 꽂 베는 청소년들이 사이에 낫치기 또는 낫거리란 놀이가 있다. 낫치기는 나무를 한 다발 해서 열 발짝쯤 되는 거리에 세워두고 낫을 던져서 나무판에 꽂히게 하는 것이다. 낫이 제대로 꽂히면 이기는 것이다. 이긴 사람은 진사람의 나무를 소유하게 된다.

7) 돈치기

돈을 땅에 던져 놓고 이것을 다른 돈으로 쳐서 맞고 안맞고의 여부로 승부를 가리는 내기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놀이이다.

8) 서 리

서리는 주로 청소년들이 주인이 모르게 남의 과실을 따다 먹거나 가축을 잡아다 먹는 것을 말한다.

서리의 대상으로서 가축으로는 탱이나 오리 등을, 과실로는 감서리, 대추서리, 밤서리, 배서리 등에서 참외서리, 심지어는 무우서리에까지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남의 물건을 값을 주지 않고 몰래 훔쳐 먹는 것이므로 도둑질이나 같은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에 욕심이 나서 한 짓이 아니고 글방에서 글을 읽던 글방 도련님이나 사랑방에서 밤이 이슥하도

록 놀던 농부들이 시골에서 밤참할 것도 없고 시장기는 들고하여 하는 수 없이 한 동네 것을 훔쳐다 먹는 것이므로 모두 애교있게 봐 주었다. 또 이렇게 서리를 해다가는 주인을 청해다 함께 먹는 일이 많으므로 나중에 알고도 말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늘은 이 집에서 닭서리를 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감서리를 하는 식으로 동네 사람끼리 하는 서리이므로 결국 동네 물건가지고 동네잔치하는 격이 되어 모두 너그럽게 봐 주었다.

9) 연날리기

연날리기 놀이는 대체로 음력 12월쯤에서부터 시작하여 음력 정월 보름날까지 날린다. 연의 종류도 가지 각색이고 연을 올리는 기술도 다양하다. 특히 연싸움이라고 하여 서로의 연줄을 결고 당기다 늦추었다 하여 어느 연줄이 질긴지를 시험한다. 이때에 연줄이 끊어진 쪽이 지게 마련이다. 커다란 연이 높이 떠서 잣은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 흥이 난다.

10) 옛치기

가래엿을 꺼어서 구멍이 크게 뚫린쪽이 이기는 내기이다.

11) 종경도 놀이

정초에 부녀자나 소년·소녀들이 앉아서 하는 조용한 놀이이다. 넓은 박지에 유학(幼學)에서부터 봉조하(奉朝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관직명(官職名)이 질서 있게 적혀 있다 맨 먼저 유학(幼學)에서 출발하여 누가 먼저 영의정(領議政)을 거쳐 봉조하(奉朝賀)의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겨루는 내기이다. 놀이 자체가 이렇게 낮은 데에서 높은 위치로 오르게 되는 것이므로 1년 운수를 점치거나 또는 종경도 판에는 관직명이 거의 빠짐없이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관제를 배우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놀이였다.

그밖에도 부녀자들 놀이나, 소년·소녀들의 놀이가 많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5. 민간신앙(民間信仰)

민간신앙(民間信仰)은 원초(原初)부터 인간본연(人間本然)의 종교적(宗教的) 욕구에서 자연발생(自然發生)한 것이며, 계시(啓示), 교리(教理) 등과 같은 것도 없는 자연적인 종교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은 그 유구한 역사성과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의 밀착성(密着性)에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은 도외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민간신앙을 무조건 미신(迷信)으로 생각하고 타파(打破)하여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민간신앙은 결코 원시적인 미신(迷信)의 집합체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민(庶民)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할 가치는 더욱 큰 것이다.

기능면(機能面)에서 보면 가족신앙(家族信仰)은 고생 많은 한국 부인(婦人)들의 마음의 귀의처(歸依處)이며, 그 모성애에 힘을 주는 절실한 신앙이다. 부락제(部落祭)는 촌락사회(村落社會)에 일체감(一體感)을 주며, 혈연적 중심의 한국 사회에 지연적(地緣的)인 통합과 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무속(巫俗)을 비롯한 이들 민간신앙의 고대의 국가통합 기능, 예술 출산성은 지금도 남아있는 성질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민간신앙을 여기서는 가족신앙, 부락신앙(部落信仰), 무속, 점복(占卜) 및 주술(呪術)의 순으로 각 절별로 일

반적인 성격과 시홍군 지방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記述)해 보기로 한다.

5 - 1. 가족신앙

가족신앙은 조영·성주·터주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신앙이다. 이제 그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개략해 보기로 한다

1) 성 주 (城主)

이것은 가신들 중에서도 최상위의 신으로, 하위의 다른 가신들을 통괄하면서 가택(家宅)의 안태수호(安泰守護)를 가져오는 신이다. 이것은 성주 대감(城主大監) 또는 상량신(上樑神)으로 불리우며 보통 집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체(神體)는 대들보 가운데 기둥인 동자주(童子柱)에 흰 종이를 오려 붙이기도 하고, 담배를 말아 붙이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방의 한 귀퉁이의 윗쪽에 판자를 붙이고 쌀을 담은 항아리를 얹어 놓기도 한다. 이 성주(城主) 단지 아래에는 지폐(紙幣)와 마른 명태를 걸어 두기도 한다.

성주는 대부분의 부락(部落)에 나타나는 신이며 지역(地域)에 따라 그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부락(部落)에도 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터 주

터주는 터주대감(大監)·지신(地神)·후상(後上)·주임(主任) 또는 터주 대주(垈主)라고도 불리우는 신으로 주택지(住宅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어느 지역(地域)에서는 터주를 「터주끼리」 또는 「터주막」

이라고 부르며 신체(神體)는 조그마한 단지를 놓고 벽로 단지 뚜껑을 덮어서 넣어 둔다. 그리고 쌀을 넣은 항아리나 단지는 장독간 보통이나 집 뒤에 안치(安置)해 둔다.

3) 제석 (帝釋)

이 신은 집안 사람들의 수명(壽命)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세존」이라고도 한다. 방안의 다팍위에나 부엌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단지를 두고 그 속에 쌀이나 조를 넣고 많은 형겼조각을 늘어놓은 형태로 안치(安置)되어 있다.

어떤 지역(地域)에서는 안방의 벽에 주머니를 만들어 쌀 3 되 가량을 넣어 걸어 놓은 것으로 「제석주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4) 조왕 (竈王)

조왕은 화신 또는 부엌신으로 밥 짓는 일과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 일체에 관계되는 신으로, 부엌의 그릇을 올려놓는 선반위에 바가지를 얹어서 그 속에 삼베조각을 넣어두기도 하고, 부엌의 한쪽 벽에 백지(白紙)나 혹은 형겼조각을 붙여 놓기도 한다.

5) 업 (業)

「업위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신은 재물신(財物神)으로 가재와 가복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 창고 또는 광의 윗쪽 한 귀퉁이에 팔을 담은 옹기의 형식으로 안치되어 있기도 하며, 혹은 부엌에 안치되어 있기도 하다.

6) 조상 (祖上)

이 조상신은 「조상대감」이라고도 불리우며 기제사의 범위를 벗어나 4

대조 이상의 조상신으로 자손의 보호를 담당하는 신이다. 경기도에서는 주로 안방에 안치하고 마루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7) 대감독 (大監독)

대감독은 「어병향아리」·「대감향아리」또는 「대감뻥티기」등으로 불리우는데 보통 대청마루의 안쪽에 안치되어 있다. 평소에는 쌀을 넣어두며 일년에 한번 추수가 끝나 햅쌀을 넣으면 다음 해의 추수 때까지 그대로 보관했다가 꺼내먹고 또 새로 추수한 햅쌀을 넣어둔다.

8) 복조리

드물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쌀을 일 때 사용하는 조리를 안방 또는 안방문 앞에 매달아 놓고 있다. 마치 쌀을 일 듯이 집안의 수복 (壽福)을 빈다는 뜻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기에는 좀 작은 것이며 예쁜 색실을 매달아 두기도 하였다.

9) 삼 신 (三神)

삼신은 자식(子息)의 재생산(再生産) 및 발육(發育)을 주관하는 신으로 종이·형겼 또는 실을 안방의 한 구석에 높이 달아 놓는다. 일명 산신(產神)이라고도 한다.

이상에서 가신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한 신들을 개략해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집안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집안의 행운(幸運), 가족성원 (家族成員)들의 장수복록 (長壽福祿), 기자(祈子), 남아다산(男兒多產), 자녀 (子女), 성장(成長), 건강(健康), 입신출세(立身出世), 소원성취(所願成就), 제액(除厄), 무병(無病), 병환회복 (病患回復), 수재 (水災) 및 화재(火災) 예방, 농산물(農產物)의 풍작(豐

作) 등이 위에서 살펴 본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존재(存在)들에게 바라는 항목(項目)들이다.

家神祭는 크게 나누어서 고사와 안택(安宅)의 두 가지 제사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제사에 대상이 되는 신은 일치하지만 그 목적과 시기 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고사는 추수가 끝난 뒤에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전통적인 농민사회(農民社會)의 중요한 통과의례(通過儀禮)의 하나로, 1년간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가내의 제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가신들에게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바치면서 영복(迎福)의 기쁨을 표시하고, 또한 돌아오는 해에도 풍년(豐年)이 들 것을 기원하게 된다.

제장은 청결해야 하며, 보통 신이 있는 집안에 설치한다. 집안에서는 비교적 청결한 대청 마루나 장독대를 제장으로 한다. 제사를 드리기 몇일 전에 집안사람 모두가 합심하여 주위를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제주는 예외없이 가정주부이며, 거의 이 주부에 의하여 거행되어 왔고 또 보유(保有)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안택제는 정월에 정기적으로 거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임시로 또는 수시로 거행되기도 한다. 이 제사의 주목적은 제액(除厄)에 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또는 집을 고치거나 이전(移轉)하는 데에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불안·질병 또는 기타의 재화(災禍)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 밖에 제사에 관련된 사항은 위의 고사와 흡사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신제는 거의 예외없이 가정의 주부에 의해 서 거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된다.

이 가신제는 일가일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祈願)함에 있는데, 인생에 관한 일체의 일이 다소간 자력 이외의 힘, 더욱기 신령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는 우리 민간신앙(民間信仰) 중에서도 고유의 관념과 형상을 적극적으로 보유해 내려오는 가장 오랜 신앙의 하나이다.

5 - 2. 부락신앙

우리 나라의 많은 신앙형태(信仰形態)들 중에서 자연적(地緣的)인 위합(圍合)·화목제(和睦祭)의 성격을 띠는 것은 부락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동제라고도 하는 이것은 부족국가시대(部族國家時代) 아래의 유구한 전통이며 일하는 농민의 것이며, 협동성(協同性)을 다짐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민주성을 띠는 민중의 축제이다. 그러면 먼저 부락신앙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동제의 성격과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제당의 명칭은 소제당, 산신당(경기, 충청), 서낭당(江原), 당산(전라, 慶尚), 본향당, 포제당(제주) 등이며, 제명은 동제·당제들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5 - 2 - 1. 동제의 기능

1) 신성기간(神聖期間)

외부인을 출입금지(出入禁止)시키고, 임산부는 출타(出他)시키고, 상고(喪故)가 나면 일단 중지하며, 동구, 신목, 제관 집들에는 다 금(禁)줄을 친다. 이 때는 일상 세속생활에서 분산(分散)·해이(解弛)되었던 상호 연대감(連帶感)을 핵심인 동신에게로 소생·집결시키고 일체감을 갖는 신성기간이다. 그리고 부락대표인 제관은 신년 첫 출발의 순간에 경건히 신전에 머리 숙이며, 오곡풍등(五穀豐登)과 국내민안(國泰民安)을 축원하는 것이다.

2) 통합기능(統合機能)

부락민의 일체감은 제후의 음복에서 더 한층 굳어지게 된다. 음복은 제물이 적으면 제관, 유지들만 하는 수도 있으나 흔히는 전부락민 남자들이 참가하거나, 「반기」를 돌려서 전부락민이 분식(分食)하며, 이 때가 드물게

고기맛을 보는 즐거운 날인 곳도 많다. 음복이란 신성만 제신의 덕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러한 음복을 통하여 부락제는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3) 정치기능 (政治機能)

제후 음복에서 노역, 상호부조문제(相互扶助問題), 식목(植木), 품앗이값 등을 논의하는 부락이 있고, 이 때 의장을 놓고 4H클럽 청년회, 부인회들까지 다 모이는 마을도 있다. 이것이 고래의 촌락사회(村落社會)의 정치이며, 이 제정일치성(祭政一致性)은 소상(遡上) 할수록 강했을 것이다.

4) 축제기능 (祝祭機能)

부락제에는 제비(祭費) 추렴의 결립(乞粒)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이 결들여지게 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사가 앞뒤로 끼게 되는데, 이런 부락민 최다수(最多數)가 참가하는 합동축제가 바로 부락제이다.

5) 예술적 기능

농악, 가면놀이 등은 중요한 농민의 집단예술(集團藝術) 욕구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별신굿이 있었고, 별신굿은 무당굿으로도 가면극(假面劇)으로도 발전했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가진 부락제는 요즈음 들어와서는 시흥군에서 약 반수 이상의 마을이 지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산신당이라는 시흥군의 제당이름과 같이 산신제가 제사의 명칭이다. 그 밖에 「산고사」와 「산치성」이라는 이름도 있다. 이런 명칭이 모두 산과 관련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시흥군내의 부락제의 대부분이 산신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 2 - 2. 부락제의 절차

부락제를 지내는 시기는 대체로 10월과 11월이 많고, 그 다음으로는 7월, 3월과 11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확이 끝나는 10월과 11월을 합치면 거의 반수가 가을에 지내고 있다.

부락제의 대상이 된 신의 성이 남신인지 여신인지 대체로 확실하지가 않다. 모르는 부락도 많고 남과 여의 비율이 비슷한 것을 보아 부락제의 대상이 되는 신의 성(性)은 별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락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개 제사를 지내기 얼마전에 제주를 선출하는데 보통 동네의 유지들이 모여서 선출하게 된다. 제주 후보자(候補者)의 자격(資格)은 우선 그의 몸이나 그의 가정에 부정(不淨)한 것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의 안집이 상을 당했거나, 부인이 월경기에 있다거나, 그 자신이나 또는 그의 집안 사람중에서 누가 병환중인 경우에는 제주후보자에서 제외된다. 보통 제주외(祭主外)의 임원을 더 뽑게되는데, 이 사람들도 제주와 비슷한 자격(資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출된 제주는 그의 생기복덕을 맞추어서 제일을 정한다. 이와 같이 제주와 제일이 확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마을의 출입을 금하게 된다. 제주의 집 문지방엔 황토를 칠하거나 뿐어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제주는 대개 제사 3일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선 마을의 우물을 청소한다. 제사에 사용하는 우물을 「당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우물은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후에는 제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동민들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제사의 비용은 어떤 독립적인 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동반들의 추렴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비는 부락마다 일정하지는 않

지만, 대체로 쓸 한 말 정도인 것 같다.

제사는 준비기간까지 합쳐서 원칙적으로 3일간에 걸쳐 거행되는 셈이다. 제사일이 결정되면,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우선 이틀전에 우물 청소가 시작된다. 청소가 끝난 우물은 일단 덮어두며 마을 사람들은 제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즉, 이 우물은 제사의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제일 전날에는 제주가 목욕을 하고 세속의 부정을 의식적으로 씻어낸다 그리고 그날 제사에 쓸 술을 빚게되는데 이것은 감주 비슷한 술로 「조라」라고 부른다.

제사의 과정은 부락마다 조금씩 다른데 당제와 산제를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당제는 제일에 인적이 그친 후 새벽 1시나 자정쯤에 치성을 드린다. 이 때는 제주가 주된 역할을 한다. 이 당제사 때에는 24그릇을 올리는 데 그 각각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왜 그것이 24개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저 습관대로 내려온 것이라 그대로 굳어진 것 같다. 제사를 받는 신들은 새끼줄에 창호지를 걸어놓은 걸립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다.

참고로 당제에 있는 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축 문 (祝文)

유

세차 병오 칠월 청미삭 초삼일

기유 유학 제추명

감소고우

동정학산 지하 유정감천

음지만인 무재무병

일동치성 주과지천우신

상향

(· 표의 내용은 매년 제일과 제주에 따라 다르다.)

이 축문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제를 통해서 당신에게 동민의 무재무병을 제주가 대표하여 빌고 있다.

산제의 과정은 우선 당집 바깥에서 산신령을 모시는 초혼제로부터 시작되는데 횃불을 동·서 양쪽에 들고 북쪽을 향하여 4번 절하면서 산신을 불러들인다. 다시 당사안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4번 절하면서 산신령에 치시을 드린다. 참고로 이 때 읽는 축문의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축 문 (視文)

유

세차병오십월기해삭초십일감신유학

제주명 감소고우

발산지령유악강신보아생민

수복기다례당보새내택길일

생주시결감갈우성영집세사

상

향

雜

歲次丙午十月己亥朔初十日甲申幼學

祭主名 故昭告于

鉢山之靈維嶽降神保我生民

受福既多禮當報實乃擇吉日

牲酒是潔敢竭愚誠永執敬事

尚

饗

제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음복을 하게 되는데, 제사 때 쓴 고지와 모든 음식물들은 마을내의 가구수대로 등분되어 모든 집에 보내어진다. 이것은 제사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보다 비록 조금씩이나마 부락 신에 바친 음식을 나누어 떡움으로써 신혜를 향수하는 데에 의의를 찾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부락제는 근대화의 추세로 점점 사라져 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민간신앙을 연구하는 데에는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다.

5 - 3. 무 속

한국인의 무속은 신앙생활 및 일반 정신문화생활 속에서 성장 되었으며 항상 한국문화 일반의 한 저류를 형성하고 보존해 왔다. 그런 면에서 무속은 민간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 한국사회에서 무속(巫俗, shamanism)이란 말이 마치 미신의 개념 대용어처럼 남용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무속은 샤머니즘 분포권 속에 위치하나, 샤머니즘이란 말의 개념은 그렇게 간단히 규정짓기는 어려운 말이다.

한국의 무속은 샤머니즘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무당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역사상의 기록으로 보면 한국의 무속은 삼국시대부터 국가종교로서 요동성내 장병의 결속이나, 국가통합의 사회적 기능에, 금관같은 예술 산출의 기능까지도 다양하고 찬란하게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조선조 이후로는 사라지고 무속은 서민층에만 머물게 되었다.

호칭에 있어서 무격의 전국 통칭은 「무당」이지만, 이 말에는 천대의식이 들어 있어서 직접 본인에게 호칭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제삼자들끼리의 대화에서는 혼히 여성이면 「무당」, 남성이면 더러 「박수」·「박사」라고 한다. 무당이라는 천대어를 피한 말이 「만신」이다. 다 직접 호칭으로는 쓰

이지 않으며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수는 적다.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의 두가지로 구별되는데 강신무와 통칭「화랭이 패」라고 불리우는 세습무는 이제 그것이 거의 다 사라져가는 순간에 처해 있다.

이 통칭 「화랭이 패」들은 이제 10쌍을 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것도 다 60대 이상들 뿐이다. 그들은 이른바 「단골구역」들을 가지고 있었고, 부가계내에서 고부간으로 계승되는 사제직과 남성들의 악사역의 계승으로 뛰어난 예술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신여부, 공수(神託)의 유무가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속연구면에서 다소의 의의가 있는 연구일 수도 있다.

5 - 3 - 1. 무 당

전술하였듯이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화랭이패)로 나누어진다. 시홍군에서는 무당을「만신」이라고 부르는데 강신무는 입무에 의한 신딸로 불리우는 제자에 의해서 계승되어지며, 화랭이패는 주로 세습에 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부이북은 주로 강신무의 사제계승형이다.

강신무에서 말하는 내린 신을「몸주」라 하며, 신장·산신·바리공주등 이들 수호령(몸주)은 무당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꼭 단일하지도 않다. 신이 내리면 무병상태로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입무를 해서 몸주를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한다. 입무는 큰 무당을 찾아가서, 신어머니로 모시고 신딸이 되어 내립굿(입무)을 한다. 유명한 무당일수록 신딸이 많은데, 그중 한 사람을 계승자로 삼고「명두」와 「명다리」를 준다. 명두는 무령의 상징물로서 동경을 연상시키는 직경 20cm내외의 원형 놋제품이고, 명다리는 귀동자·허약아(虛弱兒)들의 장수

· 건강을 기원하여 어머니들이 자식의 생년월일·주소·성명들을 3책·7
책 등 길이의 무명에 묵서해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계승받는 신딸은
단골댁들과 같이 무녀의 중요수입원을 계승받는 결과도 된다.

이렇게 내림굿을 하여 입무를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굿을 해주는 무당
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은 대개 낮은 수준의 것이다. 사실 강신무업자들
(降神巫業者)은 그 대부분이 무학이고, 가난하며, 또 불우한 사람들이 생
활에 짓눌리고 사회에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가누어 잡
은 일줄의 직업이요, 수입길이었다

화랭이패는 본래 전라도식으로 이 세습무는 거의 없어져가는 형편이다.
이들 통칭 화랭이패 단골무당은 대체로 한강이남에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전부 60대 후반이나 70대 노인들 뿐으로서 이제는 시흥군 뿐만 아
니라 경기도 전체를 통해서도 10여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5 - 3 - 2. 굿의 종류

시흥군 일대에서도 최근까지 많은 마을에서 도당굿이 행해졌고,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이 화랭이패 무당들이 사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화랭
이패 무속의 한 기반이기도 한 것이었다

도당굿은 대개 정월에 소 한마리씩을 잡아서 규모를 크게하여 지냈고,
화랭이패들이 20여명씩이나 참가한다 여자만신은 2·3명이고, 사니(男巫)가
20명, 이들이 주로 덕담과 재주놀이로 끌어나갔고 여무는 처음의 부정과
조상거리 정도만 사제했다. 제일은 정월 3일에 택일을 하되 대개 10일
이내로 7·8일로부터 시작한다 굿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不淨)

만신(무녀)이 홍천익을 입고 서서 축원(祝願)을 하고 잿물을 뿌리고 소

지 (燒紙)를 사르고 정화한다.

② 시루돋음

여무가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시루를 잡고 신을 내려받아서 동네 평안 여부를 묻는다. 화랭이들은 편리·절대·해금 등으로 잡이를 한다

③ 똘똘이

화랭이들이 동서 양편으로 삼현육각을 갖추고, 만신의 덕담을 걸들 이면 돈다. 우물·장군(長柱)들께 제사지내고 가가호호를 돈다. 매호에서는 소반에 쌀을 담은 꽃반을 차려서 축원을 해받고, 화랭이패들은 중간지대 (中間地帶)에서 마주쳐서는 한바탕 놀아댄다.

④ 산바라기

만신이 홍천익 (紅天翼)을 걸치고 산신을 모시고 동네의 대동굿을 잘 받으라는 것이다. 축원후에 걱정 말라는 공수가 나온다. 화랭이패들의 반주는 계속된다.

⑤ 공구리

이것은 굿거리는 아니고, 굿당의 노인들이 「무권」을 서는 것이다. 당시는 이「무권춤」을 공구리 춤이라 했다. 그 밖의 동네 인사들도 나와서 춤추고 놀며 화랭이들은 계속 악기만 쳐준다.

⑥ 제석(帝釋)굿

장삼·고깔차림의 화랭이가 자손 번창하고 농사 잘 되라는 축원을 하는 거리이다.

⑦ 군웅굿 (軍雄)굿

감전복을 입은 화랭이가 덕담(德談)을 하고 군웅마누라 노정기를 엮는다 당나귀를 타고 이 땅에오는 과정이 가창(歌唱)된다. 동네 사람들이 별비(別費)를 내면 무당들은 신이 나서 재주를 부린다 만신은 안나온다. 군웅은 배에 대한 귀신이며, 또 거리마다 입장군을 쳐드는데 특히 군웅

거리에서 더 모신다.

⑧ 손 굿

화랭이가 감전복차림으로 동내평안과 대주(各家長), 기주(주부)들, 자손들 특히 선주들을 축원해 준다. 밥낮 배에 관한 덕담이 많고 배만 주장으로 축원한다.

⑨ 양푼뛰기

여기서는 무녀가 파랑 바탕에 색동이 달린 옷을 입고 입에 한지를 물고 큰 놋양푼을 물고 바쳐든다. 이것을 사람들이 나와서 떼어도 떨어지지 않으나. 재수가 나쁜 사람이 떼면 떨어진다. 그러면 두루마기 끈을 떼서 양푼 속에 넣는데 그 재수가 사나운 사람은 굿을 하라고 공수를 내린다.

⑩ 뒷 전

화랭이가 감전복을 입고, 굿청 끝에 굿 시작 전부터 사람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서 한 상차려 바쳤던 짚인형 허수아비를 불잡고 씨름도 하고 오랜 수작을 부리면서 군중한테서 돈이 나오게끔 있는 데까지 재주를 부린다. 그렇게 실컷 시간을 끌고, 그 밖의 잡신들을 쫓고 허수아비는 불을 지르고 끝을 낸다. 허수아비는 도깨비가 아닌가 생각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⑪ 왕당대 올리기

흰 사기병 두 개에 각각 1m길이의 가지가 달린 참나무를 도당할아버지 할머니의 내림대로 꽂아 놓았던 것을 당주가 잡는다. 화랭이패들의 덩더쿵 가락에 홍천익(紅天翼)을 입은 만신이 춤을 추고 덕담을 해서 왕당대가 혼들리면 다 같이 당으로 올라가서 실컷 춤추고 놀고 왕당대를 당내에 모셔 둔다

이렇게 동네 인사들과 화랭이들이 운집한 가운데에서 잡은 소와 차린 음식들은 내장이며 고기며 뼈따귀들을 몇차례 끓여 먹고, 끝난 다음에는 조금씩이라도 각 가정에 반기를 돌리는데 배를 부리는 집에는 일반인의 (一般人) 두 뜲을 들린다.